

심방에서의 통 설교에 대한 연구

새중앙교회 심방 목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양정모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8년 5월

Copyright © 2018 Jungmo Yang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Tong Preaching in a Context of Congregational Visitation A Study of Visitation Ministry in Saejungang Church, Anyang, Korea

Jungmo Yang

Saejungang Church, Anyang, Korea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hange human life dramatically.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rapidly developing robotics and nanotechnology will be realized and will affect the whole of human life. This change is not limited to the secular world. The changes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ome into the church like a flood. The congregation will ask the preachers of the church to answer new questions regarding new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If we do not understand these trends and cannot cope with new civilization wisely, the church will die out, too.

In this project, the impact of traditional sermon and holistic sermon on the believers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order to make the church stand upright. The issue of bias in the traditional sermon was reviewed to make it a sermon proclaiming God rather than delivering the words of the preacher. To do this, we must have the ability to see through the whole, not biased to a part.

Saejungang Church, which the researcher has been working, has grown and developed with the perseverance, tears and enthusiasm of Pastor Park Joung-sik for 33 years. It has been developed further with the leadership of the pastor Hwang Duck-young who succeeded to Pastor Park in 2017. During the past four years, the researcher has been working as an assistant pastor. When the researcher visited houses of the believers, the researcher performed holistic sermon to deliver the mind and thought of God taking the Bible as a whole rather than parts.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he believers, the improvement points of the traditional sermon were identifi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holistic sermon would be necessary for the faith growth of the believers.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is the life of the church. When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deteriorates, the church is corrupted, and the congregation loses the strength. Therefore, the proclamation of the right Word is absolutely necessary. As one of the methods, Dr. Zoh Byoung-ho's holistic sermon is proposed. When the researcher has performed the holistic sermon for the believers of the church,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The step of this change will be the future of Korean church.

## 국문초록

심방에서의 통 설교에 대한 연구

새중앙교회 심방목회를 중심으로

## 양정도

새중앙교회, 안양, 한국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 할 것이다.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급속도로 발전하는 로봇 공학과 나노 기술 등이 현실화 될 것이며 인간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 안에도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물밀듯이 들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변화에 대한 새로운 상황과 질문들의 답을 교회의 설교자들에게 요구할 것이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명에 지혜롭게 대처 하지 못한다면 교회 역시 도태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회가 바로서기 위하여 설교와 통설교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살펴보았다. 먼저 전통적인 설교에서 나타난 편향적인 설교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설교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선포 할 것 인 지에 대해 고민과 더불어 편향이 아닌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새중앙교회는 지난 33년간 박중식

원로목사님의 땀과 눈물과 열정의 목회로 성장하고 발전한 교회이며 2017년 2대 황덕영 담임목사님으로 리더쉽이 교체 된 이후 더욱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다. 지난 4년간 부교역자로 사역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성도들과 만나는 심방을 통해 성도들에게 성경전체를 통으로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기위해 통 설교를 실행하였고 성도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통적인 설교의 보완점과 통설교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말씀의 선포는 교회의 생명이다. 말씀의 선포가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되며, 성도는 힘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조병호의 통설교를 제시한다. 본 연구자가 성도들과 조병호의 통설교를 실시해 본 결과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 변화의 걸음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것이다.

## 목 차

감사의 글 .....	x
표 목차 .....	ix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1
선행연구 .....	4
연구의 방법 .....	5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	6
논문의 구조 .....	6
II. 심방과 설교 .....	8
심방목회란? .....	8
심방목회에서 전통적인 심방 설교와 형태 설교의 중요성 .....	9
III. 통(通)설교란? .....	15
통(通)설교의 성경적 근거 .....	16
통설교의 신학적 근거 .....	19
통설교의 목회적 근거 .....	22
통(通)설교의 필요성 .....	23
IV. 심방에서의 통설교 .....	31
통설교의 기원 .....	31
통설교의 실제 .....	35
V. 통설교의 평가 .....	45
인터뷰의 목적 .....	45

인터뷰의 대상 .....	46
인터뷰 결과 분석 .....	45
인터뷰의 결론 .....	53
<b>VI. 결론</b> .....	55
요약 및 평가 .....	55
결론과 제언 .....	56
<b>부록</b> .....	63
<b>참고 문헌</b> .....	83



## 표 목차

<표1> 심방예배순서1 .....	37
<표 2> 심방예배순서 2 .....	40
<표3> 심방예배순서3 .....	41
<표4> 심방예배순서4 .....	42
<표5> 신앙생활의 연차에 대한 답변.....	47
<표6> 심방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 .....	48
<표7> 성경 지식의 수준에 대한 답변 .....	49
<표8>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 훈련해야 할 것 .....	51
<표9> 전통적 설교와 통설교의 반응 .....	52
<표10> 심방설교의 변화를 원하는가에 대한 응답 .....	53

## 감사의 글

기대와 설렘보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시작된 논문을 정리하며 지나왔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통설교의 방식을 통해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 논문을 진행하고 마무리함에 있어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 해주신 조병호 교수님, 김영래 교수님,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드루대학교 목회학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부족하기만 한 후배 목회자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어 주신 조병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도 부끄러운 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충고와 조언으로 지도해주신 존경하는 김영래 교수님께 사랑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고의 글과 강의로 귀한 가르침을 주심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셨고 사역과 학업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중식 원로목사님과 논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새중양교회 황덕영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동역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끝까지 힘이 되어 주었던 나문성 목사님과 박재관 목사님, 그리고 함께 새중양교회의 교구 목사로 사역하면서 늘 격려해주신 일곱 분의 교구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논문의 들어갈 설문에 동참해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갈미, 군포/안산, 분당, 샘마을, 수원 교구의 성도들과 담당했던 호계와 고천지역의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늘 헌신적인 사랑을 아끼지 않는 아내 김유진 사모와 든든한 아들 현준이와, 귀한 딸 현영이에게 감사의 인사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기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아버지 양옥 장로님과 어머니 공순련 권사님, 무주에서 농사일에 늘 바쁘시지만 함께 기도해주신 장인 김형조 집사님과 장모 유재향 권사님께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고맙고 감사한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모두 새기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대신하여서 저의 깊은 감사의 말로 이글을 마칠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5월에

양정모

## 제 I 장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로봇이 인간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새로운 기술 혁신의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게 될까?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어린이들이 기계와 함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교육 해야 할까?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한 쉬운 답변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또는 지혜로운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목회자들 역시 도태 될 것이다. 하지만 해서 교회가 새로운 기술 문명에 무조건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명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며 그 가치는 영원히 빛나고 고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빛나게 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선포 하는 것. 바로

설교이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매체와 수많은 콘텐츠를 통하여 교회 문화를 접하고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접근 하는 방식은 너무 오랫동안 변함없이 목회자의 설교에만 의존해 온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바라보며 바로 세워야 할까?

첫째, 설교자의 편향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모두 포함하여 설교자의 편향적인 성경 읽기와 편향적 성경 연구가 그대로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된다.

물론 설교자의 편향된 설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종교개혁을 맞이한지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경읽기 방식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신학 사상의 균형을 유지한 성경읽기를 통해 설교에서도 동일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더 연구해야 한다. 성경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4차 산업 혁명이 가져 오는 학습방법 변화에 따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발전과 개발은 목회자들만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설교의 부분까지 침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고 (신명기 6장 5-9) 말씀하셨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필요도 없고, 찾고자 하는 말씀을 검색어로 찾아 자신의

논리를 대변하는 정도로 전략 시킬 수 있다. 이런 시대에 인간 영혼의 존재와 소중함은 점차 찾아보기가 어려워 질것이 분명하다. 김병석은 설교와 인공지능 로봇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공지능(AI) 로봇은 성경의 내용과 분석 그리고 회중의 상황적 필요 파악과 내용전달의 가장 좋은 방식을 설교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정보 경쟁, 자료 확보, 기능적 차원의 경쟁시대는 점차 평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설교의 현실은 이와 같은 기능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와 딥러닝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는 이때 예배 공동체 설교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물리적 실체의 영역인 인격적 영혼의 자리, 곧 기독교 신앙의 깊은 기도를 통한 딥스피릿(Deep Spirit)의 영역 안에서 확인되는 ‘영혼의 인격적 존재 정체성’에 있다.<sup>1</sup>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알고리즘으로 텍스트는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담아 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산업의 혁명을 이룰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다고해도 결코 흉내 낼 수 없다. 선포 되는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설교에서 설교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설교는 설교자가 전하는 말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 전체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그렇게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켜왔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다시 회복 해야 한다.

---

<sup>1</sup>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실천* 49 (2016), 159.

## 선행연구

우리는 T.V,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많은 영상 설교와 성경공부 영상, 라디오를 통한 설교 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성경공부 프로그램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런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는 쉽지않은 시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더 좋은 말씀 더 은혜로운 설교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애쓰고있다. 정말 성도들이 원하고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더 좋은 말씀 은혜로운 설교를 계속 찾는 것인가? 설교자인 필자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았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sup>2</sup>는 말에는 동의 하지만, 왜, 설교 한 편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을까? 성경 한 권 이면 충분한데 설교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어떠한 형태의 설교이든지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많은 설교와,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선포하는 설교에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 내어 전달하기 보다는 성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예화가 무엇인지, 성경 암송을 통해 성경구절 구절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암기 시킬지가 먼저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른 설교는 무엇인가? 인생을 걸고 읽을 만한 책 성경 한 권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

<sup>2</sup> 이 말은 조병호의 주장으로 성경을 통해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나라와 나라의 이야기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성경책 그것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마음과 생각을 담아내는 바른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이 통설교를 시작한 계기이며 통설교 연구의 시작이 되었다. 통설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통전적 성경읽기 방식의 성경통독이다. 전통적 성경읽기 방식은 언약과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가는 것이라면 이 성경통독의 방법은 역사의 시간 흐름을 따라 시간과 공간을 통으로 이해하며 성경을 읽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언약과 구속사로만 보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통전적 성경읽기 방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 할 수 있다. 설교자와 성경연구자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게 되고 더 깊고 넓은 성경 연구의 길로 갈수 있을 것이다. 통전적 성경 읽기는 조병호의 역사 순 성경읽기 방식의 통성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성경 전체를 읽어 가며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통설교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연구는 역사 순 통성경 읽기와 통성경 듣기가 되어야 한다.

## 연구의 방법

이 논문은 조병호가 주장하는 통성경과 통설교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의 전형적 설교 스타일과 통설교를 비교하여 앞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지향할 설교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조병호의 저서와 통설교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통적 설교의 자료들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전통적 설교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가 사역의 현장에서 통설교한 내용들과 성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작성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조병호가 주창하는 통설교방식은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설교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통설교가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확신 한다. 필자가 조병호의 통설교의 방식으로 설교한 사역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연구의 제한성에 대해 언급하자면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 평촌 새중앙교회 안에서 필자에게 맡겨진 교구와 사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한계를 밝혀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설교의 방향과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오롯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노력한 현장의 이야기를 최대한 담으려고 한다.

## 논문의 구조

현재 안양 평촌의 새중앙교회 교구 사역 안에서 심방 사역을 중심으로 심방과 설교에 대한 정의와, 심방 중 설교의 중요성을 정리한다. 지금까지 심방에서의 설교 방식과 통설교 방식을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통설교의 정의와 필요성, 근거들을 제시 할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사역현장에서 실제 통설교로 이루어진 심방의 사례를 소개하고 심방 후 변화된 인터뷰를 논문에 담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성도들이 느끼는 전통적 설교와 통설교의 비교를 통해 설교자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닌 계시된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설교로 통설교의 필요성과 성경 중심적 설교임을 이야기하고 논문의 최종적인 결과와 제언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 제 II 장

### 심방과 설교

#### 심방 목회란?

심방에 대한 정의는 이미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논문에서는 심방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새중앙교회 목회 사역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필자의 사역지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새중앙교회는 경기도 안양 평촌 소재의 교회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소속의 교회로 1983년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sup>1</sup> 박중식 목사<sup>2</sup>에 의해 설립되어 2대 담임목사인 황덕영 목사<sup>3</sup>로 사역이 계승되었고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다. 현재 새중앙교회는 등록 교인의 수가 2만 명에 달한다. 매주 성도들이 5번의 주일예배를 나누어 드려야 하는 까닭에 관리와 교제라는 측면에서 중형교회나 소형교회가 겪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성도 관리의 방법으로 단위를 나누어 사역하며 이 부분을 극복하고 있다. 먼저 지역을 나누고 목회자를 선정한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

<sup>1</sup>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경기: 로렘나무아래에서, 2013), 15-16.

<sup>2</sup> 안양 평촌 새중앙교회 개척목사로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원로목사이다.

<sup>3</sup> 안양 평촌 새중앙교회 2대 담임목사로 2018년 현재 사역 중이다.

교구를 나눈다. 교구는 다시 구역으로 나누어 평신도 리더를 세운다. 이렇게 교회 전체를 관리하는 방향을 정하였다. 이렇게 교회 전체를 다양한 지역, 교구와 구역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 한다.

새중앙교회 장년 교구 목회에서 심방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는 구역을 중심으로 구역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역 심방이 있고, 성도 개인 가정별 심방이 있다. 또한 환우들과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병원 심방과 위로 심방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새중앙교회는 전화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영적 지원을 하는 전화 심방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 형태의 심방들을 통해 목회자와 직접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고, 기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문 심방 형태를 가장 선호한다. 때문에 목회자들은 전통적 심방을 통한 목회가 교회와 교구 성장에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인지한다. 심방은 단순히 사담을 나누는 친목 도모의 장이 아니다. 개인과 가정, 사업장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역 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방은 성도 개인의 신앙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심방은 목회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 심방을 통해 선포하고 나누는 말씀 사역의 중요도는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 **심방목회에서 전통적인 심방 설교와 현대 설교의 중요성**

지금까지 전통적인 설교는 목회자 중심적 설교에 치중 되어있다.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설교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의 설교의 방식은 대부분이 본문 설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등의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설교의 방식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서론으로 시작하여 설교의 대지를 두 개나 세 개로 나누고, 좋은 예화 한두 가지를 첨가하여 적용 부분에 강조를 두고 결론으로

설교를 마치는 방식이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설교의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들을 수 있었던 대부분의 전통적 설교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스스로로 만들 낸 설교라고 하기보다 한국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준 서구 교회의 설교 형식이 ‘한국화’ 되어 자리 잡은 것일 것이라 생각한다.<sup>4</sup> 전통적 설교 방식은 공적 예배에서 뿐 아니라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는 심방 설교에서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설교의 방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예배의 설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전통 설교는 텍스트인 성경 본문의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적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성경 본문을 본문 해석을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본문의 원어를 주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삶에 적용되는 형태의 설교를 강조해 왔다.

미국의 설교학자인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이 주장하는 전통적 설교는, 즉 “세 가지 대지의 설교는 한 공동체의 사건이라기 보다는 이성적인 담화<sup>5</sup>로 간주” 될 수 있다. 전통적 설교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적인 논리와 분석적인 사고이며 예화와 이야기들은 이런 이성적 논리를 예증하기 위해 쓰여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통적 설교는 “진리에 대한 이성적 해설” 이며 형태상으로 강의에 가깝다. 즉 3-4개의 대지를 통해 본문이 담고 있는 명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역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형태를 취한다.<sup>6</sup>

이러한 전통적 설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교훈을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다. 즉 설교의 기본적인 목표는 관념의 전달이며, 이 목적을 위해 수사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회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를

---

<sup>4</sup> 정인교, “새천년설교살리기: 전통적 설교에 대한 반성 - 새로운 설교 방식을 위한 전제,” *말씀과 신학* 571 (2001), 52-57.

<sup>5</sup> 어떤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말. 출처: dic.daum.net/ 다음 사전.

<sup>6</sup> 정인교, “새천년설교살리기,” 52-57.

위해 설교자는 본문에서 대지를 추출하여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배열해왔다. 이런 전통적 설교에서 회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다.<sup>7</sup>

### 전통적인 설교의 문제점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뛰어난 스피치와 표현의 기교를 더해 성도들이 좋아하는 스타 설교자도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설교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와 이해,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보다는 세속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설교자 크래독은 그의 책 *Preaching*에서 “설교는 형식(form)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교 내용과 목적에 따라 규정된다.” 고 말하고 있으나 크래독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의 내용(What) 못지않게 설교의 전달방법도(How) 진지하게 신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크래독의 설교신학은 신약성경의 비유(parable)에 대하여 신해석학(new hermeneutics)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크래독은 성경은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었으며, 설교의 방법을 장르에 따르면, 청중은 말씀을 경험(experience)하게 된다.<sup>9</sup>

결과적으로 크래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법이 메시지다” (the method is the message)라는 논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마셜 맥루한의 유명한 명제,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크래독은 “이것은 모든 설교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는 것의 대부분이 ‘무엇을’ 설교하느냐이다” 고 하였다.<sup>10</sup>

이렇듯 설교는 형식보다 내용과 전달 목적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sup>7</sup> 정인교, “새천년설교살리기,” 52-57.

<sup>8</sup> Fred B. Craddock, *Preaching*, 이우재 역,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대서, 2007), 170.

<sup>9</sup>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권위 없는 자처럼*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14). 51

<sup>10</sup> Ibid., 52.

설교자는 ‘어떻게’ 보다 ‘무엇을’ 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전통적 설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sup>11</sup>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설교자들 전통적 설교의 형식을 버리지 못할까?” 이다. 아마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따라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 성도들을 조작하는 설교는 멈춰야 한다. 설교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일시적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하고 엄숙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설교가 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성도들은 전통적 설교에 대하여 부정적 내지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속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영향으로 설교에 대해 관심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 수록 설교는 철저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논리적인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성도들의 삶은 변화된다.

## 설교의 중요성

---

<sup>11</sup> 2004년 9월 18일 한국교회 100주년 회관에서는 “한국교회 설교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16명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비평하는 설교 심포지움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기조 발제를 맡았던 유경재 목사의 글을 부록에 첨부했다.

유경재 목사의 기조 발제문을 부록에 담은 것은 단순히 설교를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목회적 성공을 말하는 이들의 설교를 냉정하게 바라보고자 함이다. 그리하여 한국교회 주류 설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경말씀의 권위와 설교강단의 권위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2004년 9월 18일(토) 오후 1시 한국교회 100주년 회관에서 월간 <기독교사상>이 주최하는 설교 심포지움을 가졌다. 한국교회 중 대교회에서 설교하는 16인을 선정하여 8명의 신학자들이 그 설교를 비평했다.

기독교 신앙과 예배에서 설교는, 과거와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중요하고 절대적일 것이다. 18세기 신학자이며 교육자였던 에밀 부르너(Emil Brunner)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설교이다.”<sup>12</sup> 라고 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충실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말씀의 중요성과 설교의 무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왜 설교가 중요한가? 설교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한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친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로 정하신 방법이기에 때문이다.”<sup>13</sup>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분의 사역의 중심은 설교였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제자를 삼되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에 담겨있다.<sup>14</sup>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 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행 1:8). 그리고 바울 역시 그의 제자 디모테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고 쓰면서 복음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 설교의

<sup>12</sup>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1.

<sup>13</sup> 김덕수,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납적 성경 강해 설교* (서울: 대서, 2010), 19.

<sup>14</sup> 임영효,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실천 신학* (서울: 영문, 2008) 145. 임영효는 이 부분을 “‘가르쳐’라는 단어는 현재분사이기에 가르침과 배움의 단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해 준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신 것은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중요성을 강조한다.<sup>15</sup>

설교는 기독교가 가진 매우 독특한 영역이다. 기독교의 설교는 예배의 중심에 있다. 물론 예배에서 성례전도 중요하다. 하지만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제외하면 예배의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설교가 없었다면 기독교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한 면이 상실되었을 것이라면서 "설교는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역설한다.<sup>16</sup> 설교가 로이드 존스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진정한 설교이며, 이것은 명백하게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7</sup>

화려한 불빛과 웅장한 음향, 높고 번듯한 교회당 건물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역과 달리 설교가 유일한 사역이며 최후의 사역이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sup>18</sup>

스토트가 주장한 것처럼 기독교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중요하다.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자는 회중에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오롯이 설교자의 몫이다.

---

<sup>15</sup> 또한 사도행전 4:1, 20, 29, 31과 5:20, 40등의 사도들의 행적을 보라.

김덕수,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납적 성경 강해 설교* (서울: 대서, 2010) 19.

<sup>16</sup> John W. Stott, *Between Two Worlds,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정성구 역, *현대교회와 설교* (서울: 품만출판사, 1985), 21.

<sup>17</sup> Ibid., 11-12.

<sup>18</sup> Ibid., 19.



### 제 III 장

#### 통(通)설교란?

이제까지 설교자들이 사용해왔던 설교의 방식은 귀납법적인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비유 설교, 원어 설교, 간증 설교, 절기 설교 등이다. 그러나 통설교는 기존 설교방식과 성경 접근방법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통설교를 주장하는 조병호는 자신의 저서와 다양한 매체, 세미나 등에서 한국교회의 성경 사용방법을 비판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의 성경 읽기의 편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부 목회자들이 신학적 견해와 진영 논리로 성경을 채택하는 편향성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설교를 주장한다.

조병호가 주장하는 통설교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전체를 통으로 읽어가는 성경 통독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이해하고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설교는 설교자의 준비와 성도의 준비가 동시에 필요하다. 성경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고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보아야한다. 제사장 나라, 5대제국, 하나님 나라가 통으로 보여야 한다. 개인, 가정, 나라가 통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서 목회자와 성도에게 가능한 것이 통설교이다.<sup>1</sup>

---

<sup>1</sup> 조병호, *선지자와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8), 82-87.

## 통(通)설교의 성경적 근거

### 구약의 성경적 근거

통설교의 근거를 모세오경 중 신명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나가는 만나 세대<sup>2</sup>에게 모세의 유언 같은 성경이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함께한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모세가 백성 전체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가데스바네아의 사건<sup>3</sup>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당부한다. 출애굽 직 후 애굽 군대의 추격과, 홍해 앞에 막힌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경험했다.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순종은 약속의 땅 목전에서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방랑의 시간을 맞이하게 했다.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인 광야 40년, 그 나그네길을 회상하면서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권면이다.

압축된 내용이지만 모세와 만나세대 간 깊은 감정의 교감이 이루어졌다. 광야 40년은 험난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헛되이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길 바라는 모세의 마음을 담았다. 이렇듯 긴 시간 속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짧은 설교에 담아 내는 것이 통설교다.

구약에 다른 곳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다.<sup>4</sup> 여호수아 역시 사명을 다하고 모세처럼 지난 시간을 회고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분 만을 섬기라고

<sup>2</sup> 조병호 박사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모세를 통해 40년간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훈련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sup>3</sup> 가나안을 정탐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순종을 선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을 40년으로 결정하게 된 사건.

<sup>4</sup> 여호수아 23-24 장.

권면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대에 남긴 유언은 통설교의 근거가 된다.

또 통설교의 근거는 느헤미야와 성벽재건에 관여한 에스라의 사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5</sup>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큰 결심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며 귀환한 백성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은 완공됐고, 한 자리에 모인 백성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함께 울었다. 귀에 들린 율법의 말씀은 민족의 회개로 이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었다. 역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했다. 기록된 말씀만을 낭독한 에스라의 사경회가 통설교의 근거다.

#### 신약의 성경적 근거

예수께서 공적 삶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할 때 사단의 예수 시험 장면이 있다.<sup>6</sup> 예수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준다.<sup>7</sup>

사단의 시험을 구약의 말씀 인용으로 물리친 본문 또한 통설교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보자. 십자가위에서 “다 이루었다”<sup>8</sup>하신 예수의 말씀은 다음의 이해가 필요하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하신 “그 순간” 1500년 된

---

<sup>5</sup> 느헤미야서 8-10 장.

<sup>6</sup> 누가복음 4 장 1-13 절, 신명기 8 장 3 절.

<sup>7</sup> 누가복음 4 장 1-13 절.

<sup>8</sup> 요한복음 19 장 30 절.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다.<sup>9</sup> 성전의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의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한다.<sup>10</sup> 이는 대제사장이 죄사함을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의미이다.<sup>11</sup> 제사장 나라의 법이 종료된 것이다.<sup>12</sup> 또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죄를 용서 받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3</sup> 이로써 1,500년간의 제사장나라의 종료와,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이 선언된다.<sup>14</sup> 또한 구약의 움직임은 성막 500년의 이야기와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의 이야기, “다 이루었다” 말한 ‘그 순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sup>15</sup>까지 알아야 한다. 조병호는 예수의 “다 이루었다”는 짧은 말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통설교라고 주장한다.<sup>16</sup>

통설교의 또 다른 예로 스테반의 설교<sup>17</sup>를 들 수 있다. 당시 초대교회는 복음 사역의 확장보다 구제에 집중하던 때에 사도들의 사역을 돕는 집사를 세운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는 집사 7명을 선출한다.<sup>18</sup> 그중 스테반이 전도 할 때 논쟁이 일어난다. 이 때 스테반은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를

---

<sup>9</sup> 누가복음 23 장 44-49 절.

<sup>10</sup> 조병호, *그 순간* (서울: 통독원, 2015), 7.

<sup>11</sup> Ibid.

<sup>12</sup> Ibid., 8.

<sup>13</sup> Ibid.

<sup>14</sup> Ibid.

<sup>15</sup> 고린도 전서 3:16.

<sup>16</sup> 조병호, *그 순간*, 71.

<sup>17</sup> 사도행전 7 장.

<sup>18</sup> 사도행전 6 장, 초대교회 집사의 명단은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본, 바메나, 니콜라였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런 스테반의 논쟁 이야기는 통설교의 또 한가지 근거가 될 수 있다.<sup>19</sup>

통설교는 성경 몇 구절에서 나오지 않는다. 성경 전체를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정, 지식과 실천, 부분과 전체를 담은 설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는 통설교의 가장 좋은 근거가 된다.

### 통설교의 신학적 근거

조병호는 성경통독을 기반으로 통신학이라는 신학적체계를 수립했다. 또 통설교는 그 신학적 정의에서 출발한다. 일반적, 통념적 단어의 개념을 재정립한다. 그리고 성경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의미로도 정리한다. 나아가 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정리하여 학문으로서 우수성 또한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조병호가 주장하는 통신학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신학이란 ‘통(通)’ 과 ‘통(通)으로 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 해석의 새로운 방법론이다. 즉, 성경의 기록들을 좀 더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 다양한 관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입장에서 아우르는 것을 일컫는다. 성경을 조명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진리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통(通)신학인 것이다.<sup>20</sup> 예를 들어, 성경을 분석적이고 부분적으로 보는 방식과 성경을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방식을 통(通)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서구의 경전 읽기 방식은 분석적이고 부분적인 방식 위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동양적인 성경읽기 방식은 전체적인 성경읽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방법이 함께 아우러져야 할 것이다.<sup>21</sup>

<sup>19</sup> 사도행전 7 장.

<sup>20</sup> 2010년 통설교 세미나 자료집, 7-8.

<sup>21</sup> Ibid.

조병호는 통신학을 정리함에 있어 먼저 용어 개념을 재정립했다. 보편적인 단어 통을 방법론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재해석 했다. 또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 조병호가 통신학을 정립한 후 통은 전체를 통하고, 이해하는 뜻으로 해석되고 사용된다.

또한 조병호는 통(通)의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성경을 새롭게 조명하는 통(通)신학의 방법론으로서 통시적(通時: diachronic) 성경읽기와 공시적(共時: synchronic) 성경읽기의 통합이 있다. 여기서 공시(共時)란 동일한 시간 영역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가로축을 의미하고, 통시(通時)란 연속되는 시간 흐름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세로축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슬퍼했던 예레미야를 볼 때, 비슷한 무렵 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인 스바냐, 하박국 등을 함께 보는 것이 공시 이다. 예레미야 이전에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았던 다윗과 예레미야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함께 보는 것이 통 시이다. 예레미야를 통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 두를 상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분적 성경읽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시적 성경읽기와 통시적 성경읽기가 통(通)으로 묶여야 한다.<sup>22</sup>

조병호는 통의 개념을 재정립하며 사고의 전환도 이루었다. 역사의 시간을 가로와 세로의 축으로 통의 개념을 완성했다. 성경 읽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의 개념도 현재를 중심으로 인간의 시간을 공시와 통시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했다. 통시적 개념을 통해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공시의 개념을 통해 동시대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만들었다.

또한 조병호는 성경을 봄에 있어 서로 다른 영역을 통(通)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통(通)신학은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 방식과 심정 중심의 성경읽기 방식 이 통(通)으로 가야 함을 말한다. 주로 서양은 그동안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를 통하여 성경을 이성적으로 대해왔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 기반

---

<sup>22</sup> Ibid.

위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에 다름 아니다. 통(通)신학이란 성경해석에 있어 이러한 동서양의 두 가지 방법론이 상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sup>23</sup>

이외에도 통(通)신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체적 사고'와 '부분적 사고' 혹은 '통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조화 뿐만 아니라, 부분과 전체는 물론,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성, 지식과 실천 등의 양립하는 두 영역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소개할 수 있다.<sup>24</sup>

통의 방식은 조병호가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한 개념이다. 성경읽기의 방식에서 더 나가 공시의 방식으로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묶을 방법론적 개념도 함께 정리했다.

각자의 다양한 방식이 통으로 볼 때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서 통의 개념 정립은 탁월하다.

조병호는 성경을 통(通)으로 볼 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와 본뜻을 헤아려 알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성경을 통(通)으로 볼 때, 시대 현실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경을 잘라 보던 수많은 기독교 내의 분열과 분리가 극복되고, 하나의 기준인 성경 안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해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sup>25</sup>

조병호가 성경을 인식하는 방식이 통이다. 통의 개념 정리는 서로 다른 것을 상호보완의 새로운 장치로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그의 통의 개념 사용은 더 확장된다.

또한 조병호의 통(通)의 성경읽기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새로운 경전

---

<sup>23</sup> Ibid.

<sup>24</sup> Ibid.

<sup>25</sup> Ibid.

해석의 길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과 내일을 지칭하는 통(通)신학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분쟁과 갈등을 넘어서서 진리를 바탕으로 동서양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 추구의 꿈을 갖는다. 성경의 깊이와 넓이에 가장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通)신학은 동서양의 교회들이 이념, 정치, 문화, 경제 등등 외형적 차이를 넘어서서 동반자적 관계로 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이자 공통분모가 될 것이다.<sup>26</sup>

조병호는 통의 개념을 어느 특정한 분야로 극한 시키지 않는다. 성경 성경읽기 방식에서 출발한 통의 개념이 학문과 사회 전반에 사용되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조병호는 통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 한 권으로 세상 모든 것과 통 하는 순간을 기대한다.

위와 같이 성경을 서양의 분석과 부분적 방식, 동양의 통전적 방식을 아울러 신학의 체계와 개념을 통신학으로 정립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학문적 체계를 세우기 위한 신학이 아닌, 성경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전하는 학문으로 통신학의 가치를 높게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조병호가 주장하는 통설교의 신학적 근거는 철저히 성경을 기초로 한 통신학이라 말할 수 있다.

### 통설교의 목회적 근거

성도들은 공적 예배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접한다. 그러나 설교 전체의 내용들이 철저히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는 않는다. 많은 설교에서 성경 본문의 이해는 없고, 설교자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로 성경을 수십 번 읽었으나 무슨 내용과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말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 이유이다. 이런 현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130살이 넘은 한국교회의 현 주소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

<sup>26</sup> Ibid.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치열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길 원한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균형을 갖길 원한다. 이것을 세우는 것이 통설교를 통해 가능하다. 500년전 종교개혁 이후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책이 되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계시된 성경이 각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성경말씀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

목회 심방의 설교는 특별한 주제를 준비한다. 물론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한다.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본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설교는 통성경으로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성경의 일정 부분에만 문제해결의 답이 있지 않다. 모든 성경은 복된 말씀이다. 성경 자체가 복음이며 삶의 문제를 해결 할 열쇠이다. 그러기에 모든 설교에서 성경의 특정 부분을 열고 특정 부분은 덮는 방식은 좋지 못하다. 전체를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 이것이 통설교의 준비 방식이며 제대로 된 성경 전달을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성경을 온전히 알게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회적인 근거 이다.

### 통(通)설교의 필요성

앞서 통설교의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설교자로서 다양한 설교스타일 연구도 필요하다. 영국에서 설교 사역과 설교자 양성 사역을 맡은 피터 미드 목사가 처치리더스에 기고한 글이다. "11가지 종류의 설교 스타일(11 Kinds of Preacher)"라는 제목의 글인데<sup>27</sup> 제시된 설교스타일을 살핌으로 통설교의 필요성을

<sup>27</sup>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8201/20160606/> (기독일보 Jun 06, 2016).

강조하려 한다.

#### 의무(Dutiful)를 강조하는 설교자

“어떤 성격은 '의무(책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진지하고 부지런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또한 독립적이다. 이런 설교의 유형은 모든 힘과 에너지가 왜 그것을 해야 하며,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보다 단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에 집중될 수 있다.”<sup>28</sup>

지금까지 대부분의 설교의 형태였다. 순종하라는 명령 형태의 설교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설교자의 설교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회자의 언어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위의 스타일의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기 어려운 설교다.

#### 기계적인 설교자

“기계적인 설교를 하는 이들은 주로 실용적인 기술과 삶에 실용적인 면에 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실용적인 해답만 있다면 그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며, 단순한 논리와 실용적인 단계를 밟아 가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삶의 동기는 보다 더 복잡하다. 단순한 기계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루지만 않는다면 교회에 기계적인 설교자가 있는 것 또한 축복이다.”<sup>29</sup>

위 성격유형의 설교자가 선포하는 설교는 장점이 분명한 설교다. 정해진 정답만을 향해 가는 설교다. 그러나 성도들은 설교에 동의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설교자는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준비해야 한다.

---

<sup>28</sup> Ibid.

<sup>29</sup> Ibid.

### 돌봄에 뛰어난 설교자

“양육에 힘쓰는 설교자의 품성은 친절하고 돌봄에 신경 쓰는 사람이다. 다른 이들에게 민감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나 이 유형의 설교에도 위험 요인이 있다. 성경 자체의 원래의 메시지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메시지만 편중되게 읽을 수 있다. 성도들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성경에 충실한 메시지 설교는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설교자는 '갈등 회피 설교자'로 분류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유형의 설교자라면, 사람들을 돌보는 동시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 성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 가이드 해야 한다.”<sup>30</sup>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설교다. 대부분 부 교역자로 사역하는 경우이다.

담임목사와 달리 맡은 교구 안에서 갈등을 최소화 해야 잘하는 목회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환경에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기는 쉽지 않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의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하는 편향성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말씀 선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다. 선포된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설교이어야 한다.

### 창의적인 설교자

“창의적인 설교자는 미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것과 눈에 띄는 창의적인 면을 늘 개발하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유형이다. 이런 설교의 특성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역에 있어서 너무 창의성이 넘쳐서 성경을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31</sup>

---

<sup>30</sup> Ibid.

<sup>31</sup> Ibid.

좋은 설교스타일이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많은 설교 스타일이기도 하다. 새로운 도전은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성경이 가진 본질을 흐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술을 이용한 설교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이라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도 분명히 경고 한다.<sup>32</sup> 말씀 본질을 훼손하는 설교 방법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 작가적 마인드의 설교자

“설교는 의사소통이며, 설교에서 요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의사소통 통로이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설교 텍스트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sup>33</sup>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는 설교다. 설교 느낌 보다 글을 대독하는 느낌의 설교자이다. 마인드와 감각을 통해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전달 하는 좋은 설교자가 된다. 반복하여 듣고 깊이 묵상하게 하는 설교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면 더 좋은 설교가 된다.

#### 교수 스타일의 설교자

“교수 스타일의 설교자는 정보를 사랑하고 외우며 정보를 분석한다. 이들은 방대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데이터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장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성경 본문과 연계시켜 전달하는 데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가 방대한 내용을 전달하다가 자칫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도들 역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유형은 메시지를 간단

<sup>32</sup> 나훔 3:4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sup>33</sup>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8201/20160606/> (기독일보 Jun 06, 2016).

명료화해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sup>34</sup>

최고의 설교 스타일 중 하나이다. 학문적 풍성함과 지식, 학문과 신학을 동시에 전하는 설교다. 분명한 전달 목표가 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핵심과 목표 목적만 분명히 하면 통설교에 가장 근접한 설교다.

#### 인간관계 중심의 설교자

“인간관계 기술은 정말 가치가 크지만 배우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만일 태어날 때부터 인간 관계에 뛰어나다면 얼마나 좋은가. 쉽게 관계성을 맺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이야기를 털어 놓게 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목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sup>35</sup>

설교자는 성도를 돌아보는 목회자다. 설교는 인간적인 조언이나 삶의 처세를 위한 조언이 아니다. 말씀에 철저히 기초해야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관계의 아름다움을 계속 이어 간다.

#### 카리스마적인 설교자

“카리스마가 넘치는 설교자는 책임을 지고 리드해 가는 것을 좋아한다. 자연스럽게 한 집단이나 단체를 이끌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교감하며 이들을 인도하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즐긴다. 그렇기에 성경에 기초해서 설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설교를 전하는 핵심과 동기가 무엇인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sup>36</sup>

카리스마(χάρισμα)는 헬라어의 카리스(χάρις)라는 단어는

---

<sup>34</sup> Ibid.

<sup>35</sup> Ibid.

<sup>36</sup> Ibid.

‘은혜’라는 의미가 크다. 강력한 목회자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카리스마적인 설교가 아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선물로 전달하는 설교가 맞다. 설교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교의 덕목이다.

#### 퍼포먼스에 뛰어난 설교자

“퍼포먼스에 뛰어난 설교자의 성격은 주로 사람 중심에 매우 외향적이고 재미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매우 열광적이고 매력적인 사람들이며, 주목을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들은 설교하는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 전한다. 그래서 청중들에게 열광과 기쁨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설교 유형이 조심해야 할 면이 있다. 감정은 항상 다른 방향으로 쉽게 흘러 갈 수 있으며,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가 약화되고 흐려질 수 있다. 메시지를 충분히 준비해서 에너지가 넘치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sup>37</sup>

설교자에 장단점은 공존한다. 방법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전달측면의 효과가 있다. 퍼포먼스만 남지 안아야 한다. 말씀보다 퍼포먼스 자체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퍼포먼스를 통해 말씀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

#### 영감을 불어 넣는 설교자

“천성적으로 의사소통에 능한 이들은 또한 성경적 진리를 매우 열심히 잘 설명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이들에게는 좋은 설교자로 보일 수 있다.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지에 상관없이 이들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그러나 지나친 열정은 성경 본문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 화술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그 내용에 충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sup>38</sup>

---

<sup>37</sup> Ibid.

<sup>38</sup> Ibid.

기도원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선입견이 있다. 성도들은 영적 갈급함과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부흥사들의 본문 선정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설교의 강조점은 분명하다. 깊은 기도와 영성을 강조한다. 메시지는 짧고 분명하다. 오히려 잡다한 언어 수사가 설교 본연의 가치를 떨어트린다. 말씀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단에서 깊은 영성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 비전을 제시하는 설교자

“교회에서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할 때 성도들은 리더십의 부재를 느낀다. 그렇기에 비전을 제시하는 설교자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든 비전을 따라가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방향 제시와 비전에 감사를 느끼지만 끊임없는 비판과 부정적 평가는 좋아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며 비전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것이 좋다.”<sup>39</sup>

설교는 비전들을 제시 한다. 성도는 철저히 자신에게 맞는 비전 만을 선택한다. 비전은 방향의 제시이다. 자신에게 맞는 비전 만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다.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비전들이 설교를 통해 너무 많이 선포되고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춰 버렸다. 경제가 성장하며 성도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고 교회는 풍성해졌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이 멈춘 이유는 바로 신앙의 질적 성장은 비전의 제시에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신앙의 질적 성장을 위한 비전들이 선포되어야 한다. 교회는 다시 성장 할 수 있다. 비전 선포

---

<sup>39</sup> Ibid.

역시 계속되고 방향과 목적도 달라져야 한다. 신앙성장의 질적 상장을 위해서는 설교자의 설교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다시 설교가 무엇인가? 라는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다양한 답을 내놓을 수도 있다. 설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가장 크다.

메신저로서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한 훈련과 준비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설교자의 개인적 가치관은 접어야 한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성경의 방법으로 성경 연구와 성경 읽기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설교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성경연구도 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 스타일에 연연하지 않는 오직 성경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설교자들이 되기 위해서 통설교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 제 IV 장

### 심방에서의 통설교

#### 통설교의 기원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설교의 체계화는 조병호의 성경통독 체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격적으로 통설교 방식을 알리게 된 것은 2010년 ‘담임목사 설교를 위한 1일 성경통독세미나’였다. 이는 100명의 목회자에게 통설교 연구를 제안한 세미나였다. 조병호 박사는 강단의 설교자들이 성경 통독을 기반으로 설교 해야 함을 강조 하면서 통설교 방법론을 제시했다.

#### 한국교회와 성경통독

조병호는 한국교회의 성경읽기가 부분적인 읽기로 머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는 전체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한다.

성경 말씀을 전체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부분으로 보면, 자신이 보고 싶은 말씀만을 찾아보는 편향적인 성경 읽기로 치우치기가 쉽기 때문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선택해서 보는 것은 때로 위험하기까지 하다.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가장 균형 있게 성경을 보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부분적이고도 편향적인 성경읽기를 해왔다. 이 같은 부분적이고 편향적인 성경 읽기는, 물론 한국의 특수적인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대체로 분석적이고 부분적인 관점을 취하는 서구의 신학을 별다른 비판 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sup>

---

<sup>1</sup> 2010년 통설교 세미나 자료집, 2.

그는 이러한 문제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서구교회에도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대안으로 성경 통독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읽는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서구 신학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성경의 편향적 읽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을 자각하고 있는 서구 교회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서구 교회나 신학자체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복 방안이나 대안을 찾기 힘든 반면, 한국교회에서는 그 대안이 발견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보는 성경통독이다.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살피며, 하나님의 역사 경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가려는 노력들이 시작되었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sup>2</sup>

조병호는 “성경 전체 내용을 살피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성경의 일부만이 복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선물하신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sup>3</sup>

성경은 전체가 복된 말씀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부분적인 말씀에 집착하여 전체를 보지 못했던 오류를 지적하고 싶다. 그 이유로,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한 선교단체 기반의 PBS(귀납법적 성경연구)를 들 수 있다. 물론, PBS의 방식이 한국교회의 성경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나 부분적인 부분에 집착했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더 큰 흐름의 성경을 조망하는 통성경 통독이 한국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sup>2</sup> 2010년 통설교 세미나 자료집 2p

<sup>3</sup> Ibid., 3-5.

## 통 성경통독의 특징

조병호가 말하는 통성경 통독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조병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통독’이란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원래 ‘통독(通讀)’은 동양에서 배움과 지식 연구의 과정 가운데 유용하게 사용하던 방법이다. 전체를 반복하여 읽는 것은 텍스트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렇게 책 전체를 통(通)으로 여러 차례 읽어가는 가운데 마침내 직관(直觀: intuition)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sup>4</sup>.

조병호는 “성경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한 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성경의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있다.”<sup>5</sup>고 말한다. 한 절씩 묵상하는 방법으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면 성경 읽기가 한쪽으로 편향되기 쉽다. 이것은 영의 양식인 성경을 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신앙의 편향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sup>6</sup> 성경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에는 관심 없이, 자신이 보고 싶은 구절만 찾아 편향하여 읽게 되면 성경의 풍성함을 경험 할 수 없다. 성경 66권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이해하여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 성경에 대한 직관이 생긴다.<sup>7</sup>

통성경 통독은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조병호는 이에 대해

---

<sup>4</sup> Ibid.

<sup>5</sup> Ibid.

<sup>6</sup> Ibid.

<sup>7</sup> Ibid.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경통독이란 성경을 전체로 읽되, 성경 66권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역사 순으로 편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장르별로 편제되어 있다.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한 곳에 아 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성경의 편제를 따라 읽어 나가게 되면 역사 흐름이 엇갈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속에서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어렵다.<sup>8</sup> 그러나 성경의 각 권들이 갖는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여 연대기적으로 재배열하여 읽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그 당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sup>9</sup>

하나님께서서는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인생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 성경을 역사의 순서대로 읽으면, 독자도 그 역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손길을 생동감있게 경험하게 된다.<sup>10</sup> 조병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성경의 한두 구절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연대기적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독해가다 보면, 세계를 경영하시며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게 되고, 성경이 훨씬 더 쉽고 질서 정연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적으로 만나고 그 삶을 배울 수 있음은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려 그 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sup>11</sup>

필자는 조병호의 주장 대로 성경 이야기 속, ‘시간 흐름의 기초, 공간 흐름의 기초, 사람들 이야기의 기초, 사건의 관계와 의미에 관한 기초’를 가장 잘

---

<sup>8</sup> Ibid.

<sup>9</sup> Ibid.

<sup>10</sup> Ibid.

<sup>11</sup> Ibid.

정돈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성경 통독이라고 생각한다.<sup>12</sup>

통성경 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단어, 구절, 문장, 문단, 장의 순서로 기계적으로 읽게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읽어야 할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sup>13</sup> 통성경 통독은 성경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의 각 장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고백'을 들을 수 있다.<sup>14</sup> 조병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전체를 부지런히 통독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이 보인다. 하나님의 경륜과 마음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sup>15</sup>

인생의 경륜이 깊어 질 수록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폭도 깊고 넓어져야 한다. 이것은 성경읽기가 반복적으로 지속될 때에 가능하다.

### 통설교의 실제

필자는 안양 평촌 소재의 새중앙교회에 2013년 12월 10일에 교회에 부임하여 2018년 2월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필자에게 주어진 사역은 교구의 심방과 설교이다. 사역의 구성은 일 년 동안의 계획된 정기 사역과 교우들을 돌보는 심방과 경조사역이다.

---

<sup>12</sup> Ibid.

<sup>13</sup> Ibid.

<sup>14</sup> Ibid.

<sup>15</sup> Ibid.

필자는 새중앙교회에서 약 5년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총 2,631회 심방을 하였으며, 성도들과 대면하여 말씀을 직접 나누었다. 심방을 세부적으로 다시 나누어 보면, 일반심방이 708건, 구역심방이 779건, 경조사 심방이 968건, 새가족 심방이 127건, 기타 심방이 49건이다. 심방횟수만으로도 심방을 통한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 시간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심방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몇 가지의 정해진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다. 이러한 모습은 설교자로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목회자 스스로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전체로 설교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설교’라 한다.

필자가 말하는 통설교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편향적 설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말씀 결핍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필자는 2,000번이 넘는 심방과 설교에서 성경의 본문을 이야기로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그 결과, 전통방식을 벗어난 ‘통설교’가 왜 심방 설교의 대안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통설교’를 통한 심방설교의 당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설교의 문제점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문 선택에서부터 부분을 결정함으로써 내용의 결핍을 야기시킨다. 특히, 많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본문을 자신의 말에 대한 근거로 삶을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의도하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본문의 편향은 성경기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 ‘통설교’는 전통적 설교의 문제점을 많은 부분에서 보완한다. 본문의 선택에서부터 부분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흐르는 성경전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통설교’의 방식은 앞서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조병호가 주장하는 ‘통신학’을 근거로 한다. 또한 성경통독을 적립한 통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제로 한다. 필자가 통설교를 위해 선택한 성경 텍스트와 설교 내용을 통해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좀 더 설명하려 한다.

다음은 2014년 1월 23일 심방의 본문과 설교 내용이다. 새중앙교회에 교구 목회자로 부임한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이다. 필자는 설교 후 아이들의 반응과 구역의 반응을 살폈다. 교구 리더중심으로 심방을 할 때의 내용이며 담당하고 있는 고천 4교구 교구장의 집에서 교구의 구역장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구역심방이면서 교구 리더들이 함께한 심방인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2명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여서 본문 선택에 고민을 했다. 한쪽에 초점을 맞추어 예배 할 수 없어서 본문을 다니엘서 2장 20절로 설교하였다. 예배의 진행방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심방예배순서1

일시	2014년 1월 23일
장소	고천4교구장 김** 권사 가정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새찬송가 563)
본문	다니엘 2장 20절

내용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 다니엘의 인생을 통으로 바라보며 영성과 사회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강조함.
----	--

먼저 아이들에게 다니엘을 아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의 입에서 의외로 빠른 답이 나왔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보라고 말했더니 당시 TV드라마에 나와 인기를 얻었던 탤런트 다니엘 헤니<sup>16</sup>를 안다는 것이었다.

성경의 다니엘은 알지도 못했다. 심지어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였음에도 다니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다. 아이가 설교와 그 내용과 인물에 대한 연관성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다니엘서를 설교했다.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 다니엘의 절망과 아픔을 설교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을 설교했다. 절망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을 가진 다니엘과 뛰어난 사회성으로 나라의 일을 맡았던 다니엘을 설교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영성과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설교의 방식은 이야기였다. 함께 예배 했던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않았고 설교로 들려준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듣고 예배를 마쳤다.

후에 예배에 참석하여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아이 하나가 다른 집사님 가정의 아이를 만나 자신이 들었던 설교를 전했다고 했다. 설교를 들은

---

<sup>16</sup> 본명: 다니엘 필립 헤니 (Daniel Phillip Henney)출생: 1979년 11월 28일, 미국 미시건 주 카슨시티패션모델 이자 배우다. 아일랜드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계 미국인이며 대한민국 입양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인. <https://namu.wiki/다니엘헤니> 검색 인용 (2018년 2월 1일 확인).



아이는 친구에게 교구 목사님이 심방에서 다니엘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하며, 필자의 설교를 들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이는 엄마에게 목사님 심방을 받고 자신도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이것은 필자의 설교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이야기가 주는 탁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성경의 인물 중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특정한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다니엘서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그려 놓으신 성경 전체의 큰 그림 안에서 펼쳐진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이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심방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들은 것을 다른 아이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설교에 개인적 언어를 줄이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성경적 언어로 전달할 때 전달자의 의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심방과 가정의 심방을 기피하고 꺼려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한 설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설교’의 방식을 통해서 설교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성경 말씀 자체가 들어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함이 더욱 명확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2월 14일 심방의 본문을 예로 들어 보겠다. 본 심방은 안수집사의 가정으로 수원 지역의 교회에서 본 교회로 옮겨와 심방을 했다. 부부와 중학생 자녀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들과 함께 드린 예배임을 밝힌다. 예배는 아래의 표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했다.

## &lt;표2&gt; 심방예배순서2

일시	2018년 2월 14일
장소	군포교구 김** 안수사 가정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새 찬송가 310장)
본문	다니엘서 6장 16-24절
내용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 하는 바벨론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계락을 꾸미고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어 죽이고자 했으나 오히려 계락을 꾸민 자들이 사자 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이 담겨져 있는 내용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필자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 오기 전 남 유다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 했다. 예레미야의 눈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그 다음으로 다니엘이 친구들과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도 왕의 기름진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은 이야기를 전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평신도였던 청소년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음을 이야기했다. 또한 인생의 성공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뜻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역시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세상 왕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임을 이야기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가 보낸 눈물의 편지를 손에 받아 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았던 것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입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자의 생각이나 개인의 언어로 사족을 달지 않았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인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방 이후 심방 받은 안수 집사는 “하나님의 연단을 이해하고 시간과 공간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 할 수 있었기에 자신은 물론 어린 자녀들 또한 지루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 할 수 있었다.” 고 이야기했다.

위의 심방을 함에 있어 필자는 어려운 현학적인 표현보다는 쉬운 단어와 어휘를 가지고 전달하려 노력했다. 안수집사 부부의 수준에 맞추지 않고 오히려 8살 아이에게 설교의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하였기에 가족모두가 지루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예가 되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설교’ 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듣고 나누며 이야기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르침이나 목회자 개인의 깨달음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성도 각자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키워 갈수 있는 좋은 방법 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설교의 방식이다.

다른 심방의 예를 더 들어 보겠다. 일반적인 가정 심방이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을 당한 장례 예배에서도 ‘통설교’ 방식의 설교를 예로 들어보겠다.

예배의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의 장례 예배는 시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가 아주 힘들어 하던 장례였는데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다.

### <표3> 심방예배순서3

일시	2015년 9월 1일
장소	샘병원 장례식장
찬송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새 찬송가 486장)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31절
내용	아볼로를 통해서 듣게 된 고린도교회의 문제에 대해 바울이 문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편지이다. 썩어질 육체는 결코 우리의 자랑일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얻었기에 오히려 어머니의 죽음 앞에 두려워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자는 내용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장례에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이 본문을 통해 육신의 정해진 죽음에 인간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함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교했다.

이처럼 본문의 내용이 장례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으로 바라보며 설교하는 ‘통설교’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더욱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일하며 저녁에 구역에서 일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직장구역의 심방의 예를 들어 보겠다. 심방의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다.

#### <표4> 심방예배순서4

일시	2018년 2월 22일 교구 직장구역 대심방
장소	직장구역 최** 권사 가정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새 찬송가569장)
본문	요한복음 10:7-18, 고린도전서 1:18,

아래의 설교의 전문을 살펴보자.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 하고 있는 예수님이 왜 자신이 선한 목자 이신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을 가지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고 목자도 자신의 양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선자 목자 이며, 우리에게 다른 양들이 있지만 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로 한 목자를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목자의 양을 훔치려고 오는 도적들도 많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처럼 보이지만 샅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목자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라 가지 못하도록 하는 도적들과 샅꾼들을 조심해야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의 길고 가야 함을 우리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얻기 위함 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시 얻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참 목자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어린양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힌 눈보다도 더 정결케 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빼앗겼던 생명들을 다시 찾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당시 에베소에서 3년간 광 머무르는 때에 2차 전도여행 당시 개척하였던 고린도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옳다고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 1장은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는 것과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아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언급하면서 세상의 어리석은 구원 받지 못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며 거대한 제국을 경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를 유지하는 통치의 한 가지 수단이었습니다. 제국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과 기득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처형하고 벌하는 형벌로써 최고로 무서운 형벌이었는데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로마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은 그 위에서 모든 죄악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늘 지성소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 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보다 잘 이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무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 입니다. 대체사장 세력들의 공식적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핍박하기위해 다메섹으로 가선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십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에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화해하라, 화목하라,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걸으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덮어 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에서 늘 예배자로 승리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sup>17</sup>

이렇게 직장 구역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었다. 그리고 작성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기초로 하여 뜨거운 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에 참석했던 구역원들은 말씀에 대해 더 깊은 묵상과 성경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공감했다. 더불어서 고된 일터의 삶을 마치고 딱딱한 설교로 지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예배 참석을 망설였던 이들 역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통설교’는 단순한 스토리텔링기법의 설교가 아니다. 공시와 통시의 개념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전체를 바라보며 철저히 성경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설교’의 방식은 철저히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통성경의 이해가 필요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방식이 기본으로 유지될 때 가능하다.

필자는 ‘통설교’의 방식을 부족하지만 꾸준히 사용해왔다. 이렇게 통설교를 통해 4년 동안 2,600번이 넘는 심방하면서 성경 어느 본문을 가지고

<sup>17</sup> 2018년 2월 22일 저녁 7시 30분 샘마을 대우교구 직장구역 심방 설교를 정리함.

설교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고 설교하게 되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것이 즐겁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 제 V 장

### 통설교의 평가

필자는 새중앙교회에서 5년간 사역을 하고 있다. 새중앙교회는 9개의 교구를 9명의 교구목사 담당하며 교구 담당 목사는 약 1000세대의 지역교구를 담당한다. 3년을 주기로 교구 목회자가 지역과 교구를 이동한다. 때문에 교구의 성도들은 여러 목회자들의 심방을 통해 설교를 들어왔다. 필자도 5년 동안 지역을 한번 이동하여 사역하고 있다. 인터뷰는 과거 담당했던 교구의 성도들과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구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인터뷰의 목적

이 인터뷰는 한국교회 전통적인 목양의 방식으로써 심방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을 듣고자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방의 방식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했다. 통설교 방식의 설교가 기존의 설교 방식과 다름을 느끼고 있는지 느낀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와 변화들이 있는지를 설문 형태의 인터뷰를 통해 성도들이 느끼는 심방 설교가 성도의 삶의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 인터뷰의 대상

이 인터뷰는 교구에서 필자에게 심방을 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원은 50명으로 정했고, 선정방식은 30대-70대까지 연령별 10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인터뷰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신앙생활의 연차는 얼마입니까?
2. 심방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3. 심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 설교, 교재, 상담(권면과 위로), 안수기도 등에서 선택
4. 심방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5. 심방설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성경본문이해, 예화, 목회자의 사적인 이야기 등)
6.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7. 심방을 통해 들은 설교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 훈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9.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심방 설교를 들어보았다면 구절 중심, 예화중심, 교훈 중심의 설교와 성경전체를 통으로 보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0. 앞으로 목회자들에게 심방을 또 받는다면 어떤 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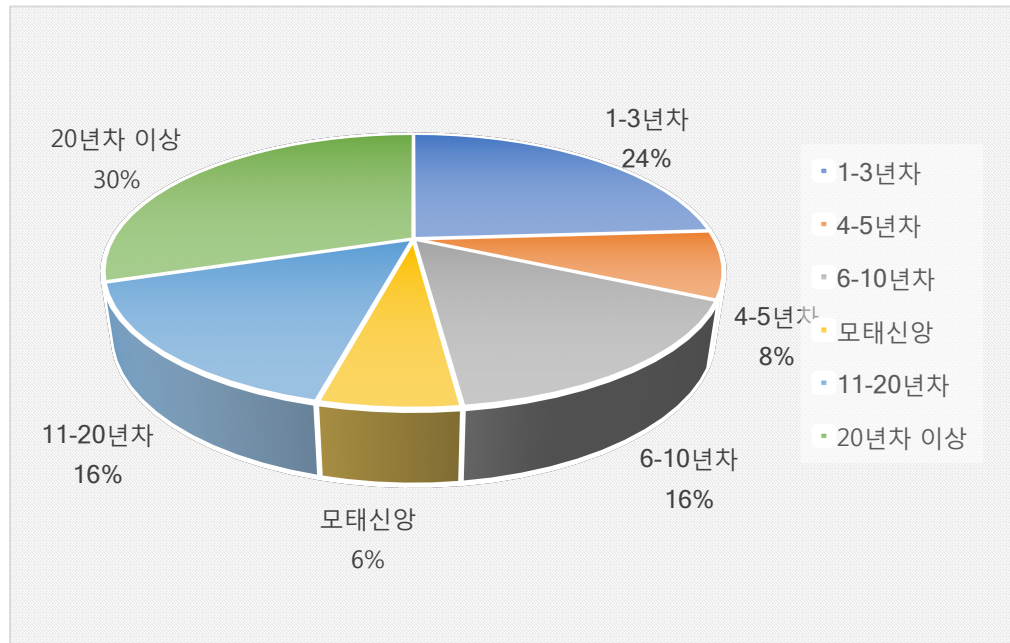
## 인터뷰 결과 분석

필자는 위의 질문지를 통해 50명의 성도들에게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나온 결과를 도표를 통해 시각화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서술했다. 문항별 질문을 통해 분석하고 기술해 보겠다.

질문1) 신앙생활의 연차는 얼마입니까?

위의 질문에 답한 사람들의 신앙 연차는 아래의 표와 같다.

&lt;표5&gt; 신앙생활의 연차에 대한 답변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신앙 생활의 경력이 골고루 분포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터뷰의 신뢰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태 신앙을 포함해서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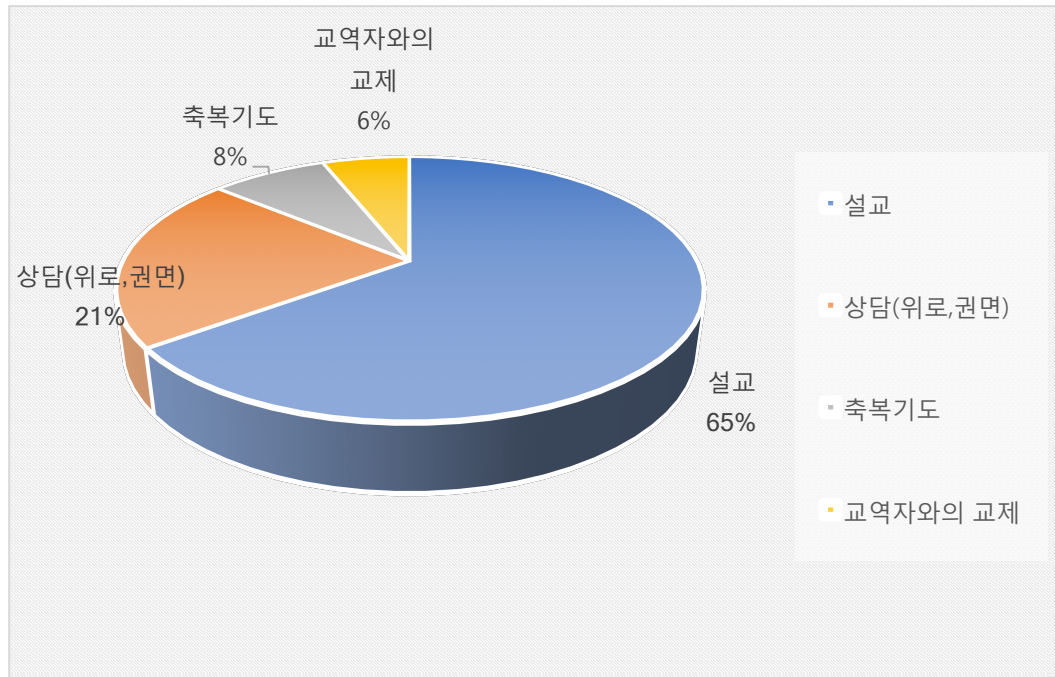
질문2) 심방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양한 심방의 이유를 이야기 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교역자를 통해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심방을 받는다는 의견이 32명 나왔고, 교역자의 권면 때문이라는 의견이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답변을 한 성도들은 신앙의 연차가 적거나 젊은 세대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심방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일수록 심방에서 주는 말씀의 위로를 사모한다는 이야기 이기도 하다.

질문3) 심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표를 살펴보겠다.

<표6> 심방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



위 표에서 본 것과 같이 심방을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말씀을 통한 위로이다. 그 뒤를 이어서 가정의 문제에 대한 목회자의 권면과 위로를 통한 상담이었다. 상담이라고 밝힌 응답자들도 말씀을 통한 위로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심방을 통해서 말씀의 위로를 갈망한다는 사실이다.

질문4) 심방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응답자가 질문 2번과 3번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통한 위로를 가장 많이 답하였다.

질문5) 심방설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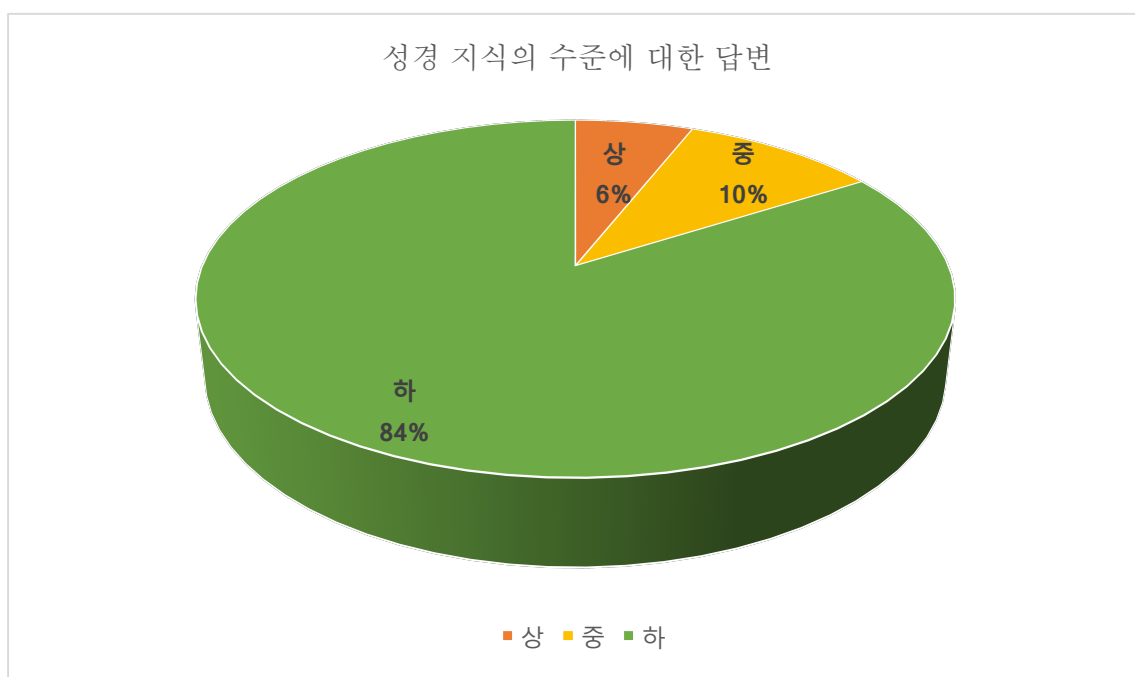
- 예: 성경본문이해, 예화, 목회자의 사적인 이야기 등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심방설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개인별 가정 별로 선포된 말씀과 성경 본문이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특별히 필자가 꾸준히 진행해온 통설교를 통해 어떤 본문이든 그들의 삶에 연결됨을 통해 위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질문6)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7> 성경 지식의 수준에 대한 답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의 다수가 자신들의 성경 지식을 ‘하’라고 답하고 있다. 한국적 정서에서 자신의 수준을 낮추는 겸손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질문을 다각도로 해

보았을 때 이들은 자신의 성경 지식을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질문1)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10년 이상의 성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응답의 결과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성경 지식이 지극히 단편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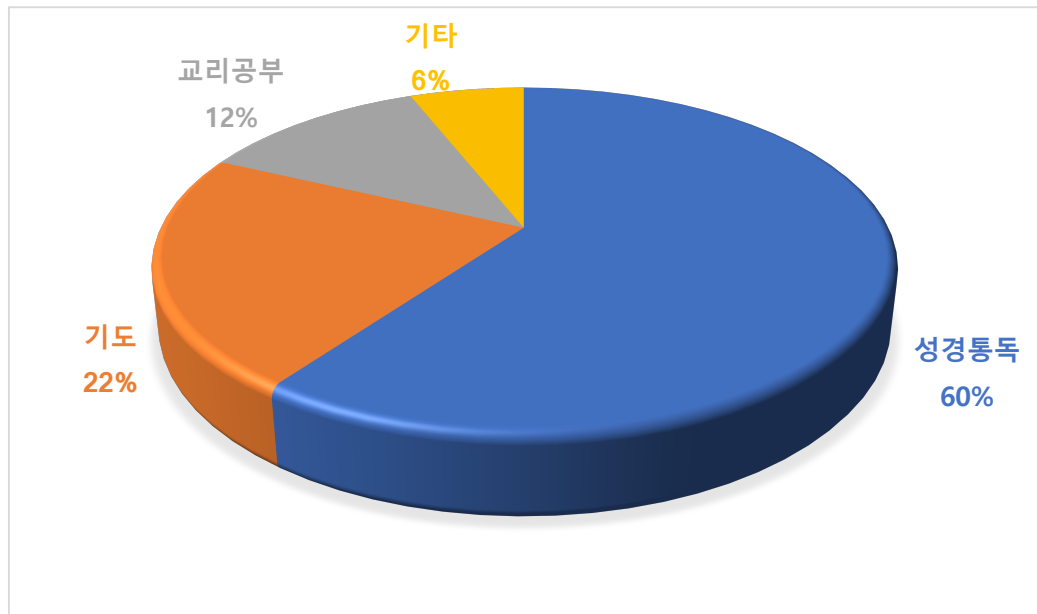
질문 7) 심방을 통해 들은 설교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심방 설교를 통해 인생의 얽힌 문제가 풀린 경험이 있었고 더 나아가 교회에 정착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신앙 연륜이 깊은 응답자는 설교를 통해 자신의 성경 지식의 미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성경공부에 대한 필요를 깨달았다고 밝혔다.

질문8)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 훈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자.

<표8>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 훈련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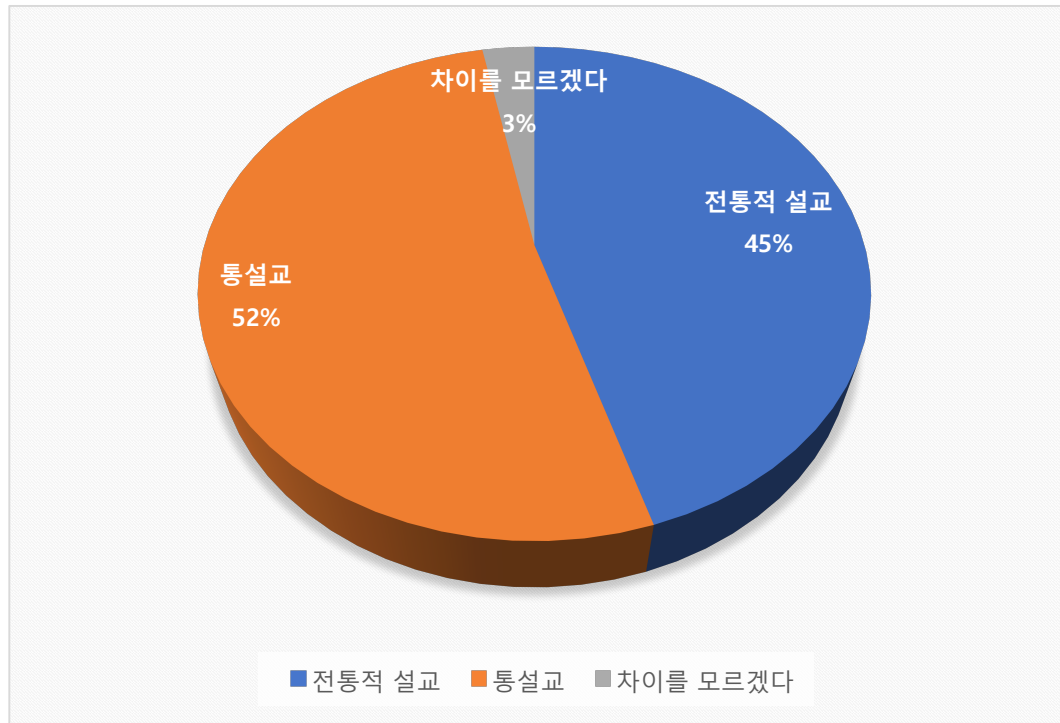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성경통독에 대한 응답을 했다. 필자가 심방을 통해 강조하기도 했지만,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응답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자신의 삶에 연결시키는 주도적인 성경공부를 원했다. 본인의 성경지식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성경통독을 선택했다.

질문 9)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심방 설교를 들어보았다면 구절 중심, 예화중심, 교훈 중심의 설교와 성경전체를 통으로 보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 질문에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본다.

&lt;표9&gt; 전통적 설교와 통설교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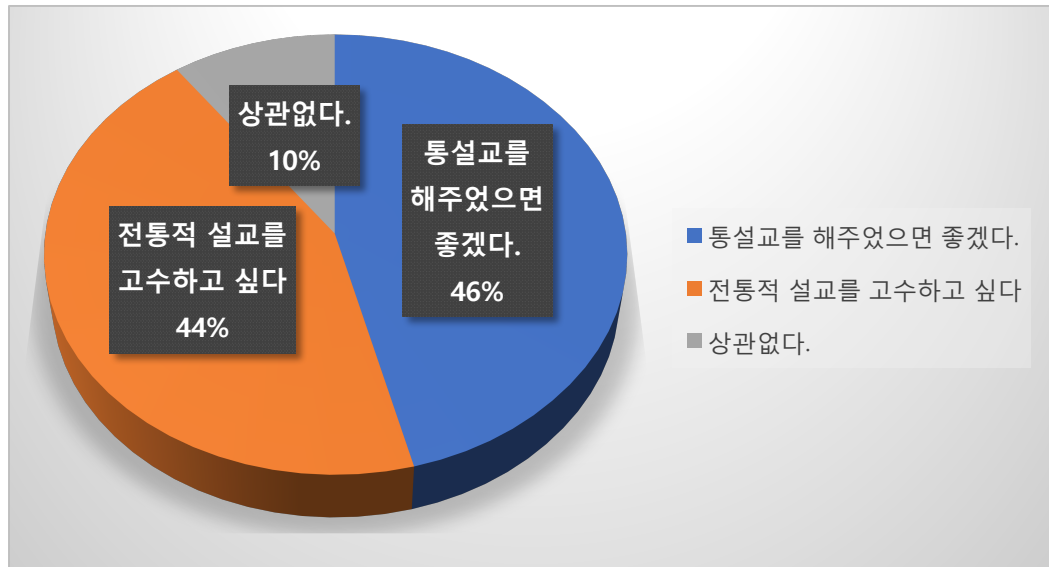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위의 질문에 대해 절반은 통설교를 지지 하였지만 절반에 가까운 성도들은 전통적 설교를 선호 했다. 두 설교의 차이를 모르는 성도들도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통설교를 통해 신앙 성장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나 전통적 설교에 익숙한 성도들은 쉽게 자신이 고수한 틀을 깨지 않으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고 연령에 신앙의 연차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들을 보여왔다. 반대로 신앙의 연륜이 적은 사람들은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질문 10) 앞으로 목회자들에게 심방을 또 받는다면 어떤 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자.

&lt;표10&gt; 심방설교의 변화를 원하는가에 대한 응답



필자의 질문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통설교에 호감을 갖는 성도들도 아직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싶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질문9)에서 구별을 못하던 성도들은 위 질문에서도 어떤 방식이든 상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좀더 체계적인 통설교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인터뷰의 결과

10개의 항목을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과 결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온 성도 대부분이 전체적인 성경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회자의 심방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어내고자 함이다. 대다수의 심방 사역자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 시키기 보다는 해결 중심의 상담을 통한 처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의 성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통적인 설교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의 ‘구절과 핵심과 요점을 주는 교훈’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터뷰한 성도들은 전통적이라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설교 방식의 설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가 내려졌지만 아직은 전체가 받아 들이기에는 개인적 성경 지식의 부족과 핵심적인 조언과 권면이 더 필요하다 느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전체를 통한 통설교를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통설교를 통해 성경을 나에게 주신 책으로 생각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좋은 결과 또한 얻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통설교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통설교의 시작과 그 시작의 변화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 하는 것에서 이번 인터뷰의 결과는 만족한다.

## 제 VI 장

### 결 론

#### 요약과 평가

본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을 포함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통설교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그리고 연구의 방법, 그 범위와 제한성에 대해서 다루었다. 또한 전통적인 설교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설교 연구의 필요성과 새중앙교회 심방사역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심방목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새중앙교회의 간략한 소개와 심방목회를 정의했다. 또 일반적인 심방목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 심방 설교의 중요성과 전통 설교의 문제점을 기술했다. 목회에 반드시 필요한 설교가 전통적 설교의 문제들로 성경 권위의 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서술했다.

제3장에서는 통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왜 통설교가 필요한가에 대해 서술했다. 통설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1가지 스타일의 설교자들을 분석했다. 설교자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왜 통설교의 방법으로 설교하여야 하는 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들어내고자 했다. 통설교의 성경적 근거를 위해, 구약에서는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중심으로 모세의 설교를 근거로 서술했고,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중심으로 에스라의 신앙사경회 부분을 서술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전 40일 금식 후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본문을 서술했고, 마지막으로 스테반이 이스라엘 2,000년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부분으로 서술했다. 또한 신학적인 근거로는 통성경의 주창자인 조병호의 통신학을 가지고 서술했으며, 목회적 근거로는 필자의 목회 경험에서 근거로 서술했다.

제4장은 새중앙교회 교구목회사역 안에서 심방 설교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통 설교 이해의 실체를 다루면서 구체적인 한국교회의 편향된 성경 읽기와 설교자들의 편향된 본문 선택의 문제를 다루었다. 통설교의 시작인 성경 통독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사역하였고 사역하고 있는 교구 안에서 통 설교를 통한 실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현장 속에서 통설교가 어떻게 적용하여 사용되는지 왜 통설교의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지의 주장을 함께 서술했다.

제5장은 새중앙교회의 교구 성도들의 인터뷰의 목적과 인터뷰를 위한 질문 내용과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여 서술했다.

제6장은 본 논문을 요약하고 한국교회 설교의 방향을 통설교의 방식으로 제언함으로써 본 논문이 구성되어 있다.

## 결론과 제언

설교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삶 전체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 전체에 행위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교는 동행 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자의 말씀 선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설교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설교해야 한다. 그 설교의 가치는 말로 다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하다. 설교가 존 스토틀트는 “기독교는 바로 그 본질에 있어서 말씀의 종교이다.” 라고 말한바 있다.<sup>1</sup>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자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강력하게 원한다. 설교가 성경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설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회심하여 날마다 거듭 나는 자(Born again)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야 한다. 자유주의 신학과 변영주의 신학, 그리고 인본을 근거로 하는 모든 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하지않는 설교가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통한 신앙의 아름다운 승리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변영과 축복,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을 통해 승리하는 방법과 이론을 알려주는 설교는 더 이상 설교 강당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급변하는 한국 사회는 더 높은 삶의 질의 욕구와 가족의 형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탈 진리화 현상 등으로 공동체 역시 무너지고 있다. 개인의 삶의 가치가 우선되고, 주일 성수 개념이 상실되어가는 모든 과정에 철저한 성경 중심의 설교와 선포가 없다는 것이다.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 교회로 침투해오는 많은 이단들도 말씀을 근거로 내세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짜깁기하여

---

<sup>1</sup> Stott, *Between Two Worlds*, 23.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변개 하였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 말하는 이유는 이미 한국교회가 진정한 말씀이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 한국교회가 설교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편향된 성경읽기와 본문의 선택 그리고 설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주는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체계화 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만을 가지고 선불리 전한다면 우리도 또한 많은 이단들과 같은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는 존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병폐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몇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인 설교를 다시 세워야 한다.

앞서서도 이야기 하였지만 지금까지의 한국교회 안에 전통적인 설교는 교회를 부흥하게 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였으며 큰 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기복주의 안에 갇혀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설교자의 이야기를 줄이면 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해줘야 하는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나의 생각 일뿐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이 시대의 설교자로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의 사명이고 앞으로 후배 목회자들에게 전해야 할 유산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번 읽지 않고 설교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읽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둘째, 오직 성경의 가치를 다시 높여야 한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지나갔다. 또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오직 은혜) *Sola Fide*(오직 믿음)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sup>2</sup> 이 다섯 가지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개혁하였으나 오늘날 그 가치는 모두 땅에 곤두박질 쳐버렸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세상의 질타를 받으며 다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바로 ‘오직 성경’의 가치를 버렸기 때문이다.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는 선배 설교자들의 설교책을 손에 들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또 성경보다는 예화가 가득한 책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성경보다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인문학 책을 더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성경책이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책으로 전락해버렸는가? 언제부터 성경책이 나의 이야기와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책이 되어 버렸는가? 이제 다시 성경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목회자들만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셋째,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도록 해야 한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

<sup>2</sup> 다섯 솔라(Five Solas)는 종교 개혁 때 처음으로 대두된 기독교의 다섯 가지 표어로, 라틴어로 쓰였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한 개신교의 기본적인 믿음 체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신교는 대체로 이 개념을 따른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C%84%AF\\_%EC%86%94%EB%9D%BC](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C%84%AF_%EC%86%94%EB%9D%BC) (2018년 2월 1일 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어려운 원어가 아닌 번역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특별한 이들에게 허락된 특권 같은 것이었다. 그만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 너무 흔한 것이 성경이 되어 버려서 성경책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성경은 주일에 예배드릴 때나 가져가는 책이 되었으며, 책장 한구석을 장식하는 장식용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다시 성도들에게 성경을 손에 들게 해야 한다. 성경 안에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가 있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 질 수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더이상 설교자가 설교 할 때나 참고하는 책이 되면 안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읽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까지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성경으로 함께 꿈을 꾸자.

성경은 신학을 체계화 하고 뒷받침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신학으로 정립한 통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소망한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만인이 꿈을 꾸면 얼마든지 현실로 가꿔질 수 있다<sup>3</sup>.” 라고 칭기스칸이 남긴 말이 있다. 이 논문은 성경통독을 기본으로

---

<sup>3</sup> 김종래, *CEO 칭기스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2), 7.

성경전체를 통으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넘나들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 가는 설교자들이 많아 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더 나아가 설교자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그 어떤 이들 보다도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꿈을 다시 확인해 가며 글을 썼다. 문득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성경말씀을 읽고 또 읽어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시간과 날은 어느덧 지나간 세월 속으로 흘러가버려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내가 그랬던가?” 하고 머리만 긁적이는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성경을 손에 잡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과거에 필자가 망설였던 것처럼 여전히 꿈꾸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들과 함께 이 꿈을 꾸고 싶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성도들에게 당당히 성경 한권이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면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로 그리고 이 땅의 성도로 살아 보길 꿈꾸어 본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한 권 손에 들고 함께 꿈꾸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이글을 쓰면서 계속 가슴이 벅차 오른다. 왜냐하면 필자 외에도 많은 이들이 이미 그 꿈을 함께 꾸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역하고 있는 새중앙교회의 상황속에서 필자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훨씬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겠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벅차 오르는 감격과 뜨거운 마음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픈 마음으로 사역의 현장 어디서나 통설교 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갈 것을 다짐한다.

## 부록 1. 한국교회 설교를 말한다

유경재/안동교회 원로목사

## 들어가는 말

이번에 기독교사상이 “한국교회 설교를 말한다”라는 주제 아래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설교자 16인을 선택하여 그 설교의 방향과 그것이 미친 영향을 평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기독교사상> 8월호 뒷표지 심포지엄 광고 멘트에 보면, “한국교회 강단은 거의 ‘폐쇄된 성역화’였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매우 심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설교자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 들거나 교권적 군림을 피한다든지, 삶과 시대적 상황으로부터의 유리, 설교로 포장된 신변잡기적 잡담, 설교로 포장된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 이기심을 포장하는 경우와 오도된 역사인식을 주입시키는 사례들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런 설교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21세기 한국교회의 강단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교회 강단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름이 개교회 문제나 한국교회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그 강단이 연성화되므로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운용 교수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허공을 치는 설교는 성도들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되지 못하였으며, 설교가 가지는 예언적, 치유적, 교육적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설교는 그 영향력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그 시대에는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갔으며, 복음 아닌 것이 교회를 지배하였고, 혹 교회는 많은 재산과 함께 비대하고 부요 했을지 모르지만 설교의 능력은 상실한 시대였다.” 지금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는 바로 교회가 그 사회적 영향력을 잃으므로 이 사회에서 퇴출당할지 모르는 위기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과거로부터 탈피하여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영토의 확장과 성장만을 위해 ‘울인’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교회는 사회 개혁이 오히려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1987년 6.10 항쟁 이후 급속하게 민주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를 변혁시킬 때부터 한국교회 성장은 멈추고 그 영향력이 급속하게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이 사회의 변혁에 소극적인 자기 방어적 자세를 취하여 왔다. 한국교회는 사회의 개혁에 항거하는 보수적 세력에 편입되어 역사의 진보를 훼방하는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한국교회를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사의식 없는, 신학적 성찰이 결여된 설교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교에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깨우치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한국교회 강단이 잘못되므로 그 힘을 잃었고, 낯나간 사람이 길을 잃듯 오늘의 교회는 역사의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다. 여기에 한국교회 강단이 새로워져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 글을 작성할 만한 연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교회 설교를 말한다’ 는 글을 쓴다는 것은 자칫 잘못된 자기 편견을 나열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주저하였지만, 8명의 훌륭한 설교학 교수나 설교평론가들이 16인의 한국교회의 대표적 설교자를 분석한 글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설교학자들이 한국교회 많은 설교를 읽고 분석한 글들을 참고하여 한국교회

강단의 대체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16인의 설교가 모두 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일괄적으로 그 설교의 경향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설교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바로 한국교회 강단이 안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를 종합해 보고자 한다.

### 신학의 부재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이 없다는 점이다.

신학이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체계화시킨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신학의 범위가 성경 안에만 머물지 않고 자연과학과 역사학 그리고 윤리 등이 모든 신학에 포함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체로 신학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다.

설교는 항상 성경을 그 텍스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파악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위하여 주석과정을 거치지만, 단순한 텍스트에 대한 주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리고 그것의 이해를 돕는 신학적 지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올바른 신학적 지식은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일의 길잡이가 된다. 이런 신학의 부재는 성경해석을 자의적으로 흐르게 만들고,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게 만든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박자 구원’ 과 ‘청부론’ 이다. 두 가지 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도 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대단히 매력적이며, 자본주의 사회 현실에 모순을 느끼지 않고 그 사회 속에서 안심하고 부를 축적해 가게 만든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나타난 ‘아나웁’ (가난한 자들)을 ‘남은 자’ 로 해서 이룩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신약성경에 이르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의 가난을 통해 이룩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있었다면 ‘삼박자 구원’ 이나 ‘청부론’ 이 얼마나 비신학적이며, 비성서적인가를 곧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부자 청년은 사실상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고, 영생까지 갈망한다는 점에서 그는 그야말로 ‘깨끗한 부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예수님도 그 점을 인정하셨다. 하지만 영생을 얻고자 할 때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자 그는 슬픈 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깨끗한 부냐 더러운 부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에 있으며, 그것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 드리고 있는 자본주의 이념이 결코 우리의 신앙이나 신학이 용납하는 이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며, 약육강식(弱肉強食), 적자생존(適者生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교해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신앙으로 긍정하고 받아드리는 것이 성속(聖俗)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순된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성속의 구분을 넘어서는 길이 아닐까? 오늘 설교자들이 이런 신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과 현대인의 현실적인 요구와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양보하고 현실을 신앙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닐까?

신학 가운데도 특별히 성서신학의 부재가 문제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인데, 기본 텍스트인 성경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지 못한 채 즉 성서신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성경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이해만이 발달하여 교리설교는 활발하게 선포되고 있으나 역동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와 그 시대와 사회의 상황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과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신앙과 삶의 괴리를 심화시켜 온 데 공헌하였다.

폰라드 이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救援史로 이해하는 성서신학의 경향을 한국 교회는 아직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의 역사 현장이 기독교가 선교된 이래 한번도 평안한 적이 없을 만큼 격동하고 있는데, 교회는 대체로 그 역사를 외면하고 기복적이며, 내세 지향적인가 하면 교권 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져 왔다. 강단의 설교가 바로 이런 경향을 주도하여 왔다고 하겠다. 신앙을 삶의 현장과 연결시켜 주는 설교가 부족하였다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60년대 이후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구원사적인 이해 없는 도덕적 윤리적 설교는 교인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 잘못된 교회론

둘째로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는 잘못된 교회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교회 중심의 교회론이 바로 그것이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 성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라고 이해하는 교회론은 이미 로마캐톨릭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종교개혁 이후에도 별로 변화되지 않았으며, 보수신학을 바탕으로 한 한국교회의 교회론도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교회론을 계승하였다. 이런 교회론이 70년대 경제성장과 맞물려 교회성장론으로 발전하였으며, 그래서 70년대에는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교회 성장론은 개인주의 신앙을 강조한 나머지 기복신앙의 만연을 가져왔으며, 교회의 대형화 추세는 농촌과 공단지역 교회의 소외를 심화시킨 교회의 계층화를 자극하였다. 그뿐 아니라 교회가 점차 보수화 되고 개인 구원에 강조점을 두면서 한국 교회는 점차 ‘탈사회적’ 집단으로 변모해 갔으며, 이는 결국 교회가 성장 그 자체에 목적을 둔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교인수와 화려한 건물에 있어서는 단연 놀라운 증가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성을 상실한 교회로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올바르게 적응할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다.

한국교회 강단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교회론 대신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β α σ ι λ ε ι α τ ο ύ Θ ε ο ύ)를 실현시키는 “역사적 종말적 공동체”로 이해하는 새로운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은준관 박사는 그의 저서 <신학적 교회론>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교회를 정의하였다. “진정한 교회란 역사의 삶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의 뜻을 신앙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의 구원과 축복이 아니라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웃 모두와의 공동운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하며, 교회 목회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힘쓰는 목회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중심 교회론에 몰입하여 있는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김운용 교수는 그의 글에서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통치하심이 중심을 이루던 하나님 나라 목회 사역은 점점 멀어지는 희미한 불빛과 같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신학계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의들은 활발했지만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는 아직 깜박거리는 희미한 불로 남아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언어들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넘치는 경이감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현재적인 사건이나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격이나 흥분을 잃어버리고, 오직 과거의 사건에 고착되어 있다.”

김교수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설교의 중심주제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관련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선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셋째는 회개, 넷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주제의 설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보다는 목회자 자신이 왕처럼 자기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미국처럼 강대한 힘의 통치를 긍정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강단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한국교회 강단에 ‘회개’는 설교의 흔한 주제이지만,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전하게 거듭남으로서의 회개라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회개에 머물고 있다. 목회자들의 설교는 교인들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목적으로 선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개는 개인주의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생명 공동체를 향한 자기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을 선포한다함은 이 땅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세계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지금 이 세계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통합되어 있기에 이 세계의 모순을 외면한 채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아직도 이 땅의 삶과 사후의 삶을 별개의 것으로 가르치면서 이 땅의 현실은 외면하고 저 하늘만을 바라보도록 설교하고 있다. 이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이루게 하였다.

이번에 연구 대상이 된 16인의 설교 비평을 통해서도 이런 점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목회자들이 교회 중심의 교회론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의식의 결여



한국교회 강단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역사의식의 결여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가 예언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다. 격변하는 사회에 살면서도 한국교회 강단은 그 시대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큰 이슈들에 대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리므로 교인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라크 파병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며, 경제 성장이 우선인지 분배가 우선인지 헷갈리며, 북한을 돕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없다. 결국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 정치적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는 미디어의 정보를 따라 판단을 내린다. 설교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말씀으로 조명하기를 포기하고 오로지 개인적인 신앙생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실상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미 정치적 성향이 분명하여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자기 성향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의 보수적 흐름에 동승하고 있는 교인들은 목사가 예언적 설교를 통하여 현실을 비판할 때 ‘정치 설교’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기가 일수이다. 목회자들은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하여서도 설교의 예언적 기능을 쉽게 포기한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시대 주류 세력들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을 때 역시 예언자들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언자들과는 달리 오늘의 목회자들은 현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가고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갖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현실을 긍정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선 십자군처럼 행동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에 편입시키려 한데 반하여

지상의 왕국을 지향한 왕권은 이를 분리시키려 하였다. 오늘 목회자들이 예언자의 전통을 따른다면 이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전반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 드려야 마땅할텐데, 오히려 이를 분리시켜 이원화하고 있다. 성과 속, 천국과 이 세상, 교회와 죄 많은 세상을 구분하면서 목회자 자신이나 교인들이 주로 전자에만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예언적 기능은, 하나님이 그의 통치 아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만드시려는 구원사에 대한 통찰력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데, 설교에 그것이 결여될 때 결국 거짓 예언이 될 수밖에 없다. 16인의 설교 비평에서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적사항이 바로 역사의식의 결여이다.

#### 나가는 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역사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세계인 개인의 신앙에만 집착한 결과 구원사의 흐름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위기를 재빨리 파악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난날의 영광에 도취되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그 큰 교회당들이 텅텅 비고 노인들만 몇 명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교회로 변모되고, 예언적 기능을 회복한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로 거듭날 때 새로운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 부록2. 통설교 본문과 요약 샘플

제목 하늘소리, 땅소리

본문 사무엘상 25:10~11 / 누가복음 15:1~2 / 고린도후서 10:1~2

요약

누구나 사람의 평가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 다윗과 예수님, 바울. 성경의 대표급 선수이다. 이들에게 평가가 뒤따른다.

다윗에 대한 평가는 '만만'에서 '도망 나온 종'이다. 다윗이 만만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 흑색선전의 대가 사울의 시기를 받는다. 다윗도 땅의 평가에 민감했다. 한 예로 나발에게서 '도망 나온 종'의 평가를 받은 다윗의 반응은 '칼을 차라는 것'이다. 그러자 아비가일의 재평가 시도가 있다. 그녀는 다윗을 왕이 될 사람이라고 재평가한다. 일찍이 사무엘로 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평가, 하늘의 소리였다. 다윗은 하늘의 소리에 순종한다. 땅의 소리보다 하늘의 소리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이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세리 와 창기들의 친구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평가에 흔들 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당시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 "이 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은 이 소리에 실할 뿐, 땅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평가받는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 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 라면 육체적이라는 말도 몰랐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 평가에 화를 낸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람의 소리에 민감했다. 그러나 그 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그들을 고치고자 고린도전·후서를 쓴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이 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 변화될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의 쓰임새를 말씀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권세자들을 위해 사 하실 것이라는 소리였다.

우리가 땅의 소리에 지나치게 민감하기보다는 하늘 소리에 더욱 마음을 열고 살자.

제목: 함께 끝까지

본문: 민수기 27:18~20 / 요한복음 19:25~27 / 디모데후서 4:9~11

요약: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싸움 이후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동행하다보면 싸우게 된다. 그런데 싸우긴 싸우되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세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도 비가 내린 적은 많았다. 승산이 전혀 없는 아말렉과의 싸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낼 때, 그리고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설득이 60 만 명을 설득해 버린 그 순간이 그러하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세와 동행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의 삶을 존귀한 삶이라 평가해 주셨다. 그리고 세의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신다. 끝까지 함께 한 것이다. 바로 이들의 동행이 가나안 시대를 여는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 역시 끝까지 동행했다. 동행의 시작은 예수님의 요청이었다. 그런데 둘 사이에 결정적으로 비가 내린 것은 십자가였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자기 형 야고보가 순교할 때에도 헤어질 만도 하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가장 오래

동행한다. 동행의 끝은 "하나님은 사랑 이다." 라는 고백이었다.

사도 바울과 누가가 동행한다. 누가와 동행은 제2차 전도여행 때부터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은 디 테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쓴다. 늘 사도 바울을 치료하며, 그리고 고 로마 화재의 방화범으로 잡혀 죽게 된 시점에 얼마든지 관계가 끝 날 수 있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갔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비가 오고 천둥 번개 칠 수 있다. 그러나 그 때를 계기로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는 소망을 싹 틔울 수 있다.

제목: 헤롯 가문과 신도시

본문: 에스라 4:20~21 / 누가복음 23:10~12 / 사도행전 23:23~2

요약: 지금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는 '세종시'이다. '도시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권력과 도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2세는 엄청난 매장량의 금광을 발견 한 후, 그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따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운다. 빌립 보는 이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었다. 그 뒤를 이어 헬라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역시 이집트를 점령하여 '알렉 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운다. 이처럼 제국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시 하나를 세워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싶은 것이다.

성경에도 많은 도시가 등장한다. 그 중 대표적인 도시 '예루살렘'이다. 또한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자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한밤중에 올려 보낸 도시이다. 이름만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이사라는 '카이사르의 도시'였다. 헤롯이 로마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친 도시였다.

헤롯 가문 출신으로 대단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대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도시를 만들어 바친 후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루살렘에 큰 성전을 지어주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은 일절 없었다. 사람들의 마음만 달래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헤롯의 아들 중 한 사람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운 헤롯 빌립이었다. 또 한 아들은 세례요한을 죽이고,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가지고 희롱하며,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건네며, 평소 원수였으나 그날 친구 된 사람, 헤롯 안티파스이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저 여우"(눅 13:32)라고 평가하신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헤롯을 훌륭한 정치가였다고 평가한다. 사람들의 평가는 끝까지 속일 수 있다. 후대 역사가의 펜 끝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제목: 생각하다와 만들다(Think and Make)

본문: 창세기 1:9~10 / 출애굽기 39:38~39 / 사도행전 18:1~3

요약: '생각하다'와 '만들다' 라는 동사는 우리 인생을 수놓게 한다.

창세기 1장은 '생각하다'와 '만들다'가 통으로 들어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1). 빛을 생각하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 진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만드는 능력이 하나로 담긴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 이다.

때로는 생각하고 만든 것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막 출애굽한 이스 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다. 그 대 가는 혹독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이상의 법궤와 회막을 만들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 설계도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실제 만드는 일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몫이었다.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 생각을 높이 평가하신다. 문제는 다윗 당대에는 만들지 말라는 것 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필요한 재료들만 준비한다. 얼마나 만들고 싶었겠는가? 하지만 다윗은 끝내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가장 결정적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십자가 다. 이 십자가를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 자가를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 열정, 정의, 서 가운데 만든 십자가의 효과는 든 인류에 이미 선포되었 다.

바울이 천막을 만든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이다. 즉, 자비량 사역을 위해 천막을 만든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의 효과를 알았기에 천막 만드는 일이 즐거웠다. 진정한 '생각하다'와 진정한 '만들다'는 경제학 이나 철학이 아닌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제목: 걸림돌의 유익

본문: 출애굽기 6:8-9 / 사무엘상 20:31-32 / 고린도후서 11:24-25

요약: 디딤돌과 걸림돌 중 무엇이 결국 더 유익할지는 지나봐야 안다. 걸림돌 이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세는 40년 동안 한 마디로 그는 분한 디딤돌을 가진 '왕자'였다. 그런 세가 쫓 도망한다. 그렇게 걸림돌과 더불어 40년을 보낸다. 디딤돌 40년, 걸림돌 40년을 지나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를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다.

다윗에게 곰, 사자, 늑대는 끊임없는 그의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걸림돌을 넘어서기 위해 그는 물매라는 획기적인 무기를 개발한다. 바로 이 걸림돌을 통해 그는 골리앗을 만나서 싸울 수 있는 디딤돌을 장만했다. 골리앗을 이긴 결과 모든 국민들이 다윗을 높였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사울이 걸림돌로 등장한다. 그러나 사울로 인한 수많은 걸림돌로 인해 다윗은 다듬고 또 다듬어진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도 바울은 디딤돌 천 개를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았다. 그 디딤돌은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디딤돌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 디딤돌은 곧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대단한 디딤돌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든 걸림돌을 자기 삶 안으로 끌어들인다. 결국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롬 1:1)

걸림돌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 걸림돌을 통해 빛어진다. 모세에게 바로, 다윗에게 사울, 바울에게 유대인이라는 걸림돌은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빛어가는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 부록 3. 50주 통성경 본문 리스트

주간	본문 및 제목
1주	창세기 45:7~8 / 창세기 49:24~25 / 마태복음 5:9 화해와 축복
2주	이사야 9:6~7 / 마태복음 2:7~12 / 마태복음 18:27~31 들러리 기쁨
3주	창세기 14:14~16 / 사사기 7:6~8 / 사도행전 1:14~15 318•300•120
4주	룻기 2:4 / 다니엘 6:1~4 / 사도행전 9:18~21 믿음으로 출근한다
5주	창세기 8:18~20 / 레위기 5:11~13 / 골로새서 1:10~13 주의 임재 앞에
6주	시편 19:1 / 누가복음 1:1~4 / 사도행전 1:1~2 한 사람을 위한 편지
7주	창세기 24:54~56 / 마태복음 5:9 / 골로새서 4:7~8 산소 같은 사랑
8주	창세기 47:8~10 / 마태복음 9:10~13 / 누가복음 19:1~5 내가 연약할수록
9주	시편 91:14~16 / 누가복음 15:22~24 / 요한복음 21:6~7 얼마나 좋으셨을까?
10주	여호수아 14:13~14 / 사무엘상 20:17 / 사도행전 9:26~27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11주	신명기 6:4~5 / 여호수아 23:10~11 / 요한1서 4:7~8 하나님 사랑합니다
12주	창세기 46:2~4 / 룻기 4:14~17 / 사도행전 15:12~13 역사와 과거로부터의 자유
13주	창세기 21:5~6 / 사무엘상 17:47 / 빌레몬서 1:20~21 웃음이 있는 마음
14주	창세기 41:37~40 / 사무엘하 5:1~2 / 요한복음 21:12~14 생각보다 아름다운

15주	민수기 27:18~20 / 여호수아 1:5~6 / 디모데후서 3:15~17 가슴 뛰는 선물
16주	역대상 29:10-12 / 느헤미야 8:8-10 / 요한복음 2:7-10 그분과 함께 축제를
17주	창세기 27:12-16 / 누가복음 10:17-20 / 히브리서 11:6 이 가을에
18주	사무엘하 5:11-12 / 시편 27:3-4 / 마태복음 6:29-30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며
19주	여호수아 14:11-12 / 사무엘하 7:18-19 / 사도행전 16:29-32 한걸음 차이
20주	창세기 24:26-27 / 누가복음 5:27-30 / 빌립보서 1:15-18 희망과 열정
21주	창세기 1:14-16 / 사도행전 3:1-4 / 로마서 16:1-2 함께하는 기쁨
22주	시편 62:1-2 / 이사야 43:21 / 요한계시록 5:13 그의 삶엔 노래가 있다
23주	민수기 6:22-27 / 요한복음 21:20-23 / 요한3서 1:1-4 요한의 축복
24주	여호수아 2:14-16 / 사무엘상 19:11-12 / 사도행전 9:23-25 가능성의 시작
25주	창세기 41:14-16 / 역대상 11:1-3 / 사도행전 2:1-4 변화 Change
26주	민수기 14:19-20 / 느헤미야 1:9-11 / 로마서 5:8 숲을 꿈꾸는 나무
27주	출애굽기 14:21-23 / 여호수아 6:15-20 / 히브리서 4:15-16 홍해와 여리고
28주	민수기 14:6-10 / 여호수아 14:9-12 / 사도행전 10:1-5 누가 21세기 사람인가?
29주	예레미야 애가 1:12 / 사도행전 17:25-27 / 로마서 9:1-4 탕(湯)과 통(Tong)
30주	출애굽기 28:9-14 / 사무엘하 5:11-12 / 마태복음 6:28-30 하늘보석으로의 초대

31주	오바댜 1:3-4 / 디모데후서 3:15-17 / 빌레몬서 1:8-10 오바댜와 빌레몬
32주	창세기 49:8-10 / 신명기 33:7 / 디모데후서 1:3-5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은
33주	출애굽기 4:12-14 / 마태복음 19:13-15 / 빌립보서 4:4-7 마음에서 마음으로
34주	창세기 45:5-8 / 느헤미야 2:7-9 / 사도행전 10:1-5 생각 밖에 생각으로의 초대
35주	출애굽기 15:1-3 / 시편 27:1-5 / 마태복음 6:30-34 Praying Through the Bible
36주	이사야 53:10-11 / 마태복음 1:24-25 / 마태복음 28:6-10 가장 영원한 승리
37주	이사야 53:5-7 / 마태복음 27:55-61 / 로마서 8:31-32 가장 아름다운 순간
38주	룻기 2:10-13 / 마태복음 11:28-30 / 사도행전 9:26-27 봄비 같은 은혜를
39주	민수기 14:17-19 / 이사야 40:28-31 / 마태복음 27:59-61 절망을 이기는 힘, 희망
40주	스가랴 9:9 / 마태복음 20:26-28 / 사도행전 2:41-47 높은 수준에 이르는 길
41주	사무엘상 18:1-4 / 요한복음 21:20-22 / 사도행전 3:1-4 높은 수준을 꿈꾸는 곳
42주	창세기 22:15-19 / 마태복음 6:31-34 / 빌립보서 4:4-7 봄이 오는 아침에
43주	열왕기상 2:1-4 / 디모데후서 1:3-5 / 히브리서 11:6 모나리자 그림보다
44주	이사야 53:4-6 / 마태복음 1:18-25 / 로마서 15:22-24 그 분을 위하여
45주	말라기 1:1-3 / 요한복음 21:15-17 / 요한1서 4:7-9 가장 아름다운 날
46주	민수기 6:22-27 / 룻기 2:1-4 / 요한3서 1:1-3 은혜와 평강

47주	출애굽기 19:5-6 / 사도행전 9:1-9 / 에베소서 1:3-6 하나님의 은혜
48주	출애굽기 12:21-22 / 느헤미야 2:3-8 / 요한복음 13:1-7 중간목표 튼튼히 하기
49주	여호수아 1:7-8 / 에스라 7:1-8 / 누가복음 2:46-52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50주	여호수아 1:5-8 / 잠언 3:1-10 / 마태복음 6:30-34 지혜와 용기

부속 4. 세종양교회 2018년 장년교구 사역 일정표

2018년 세종양교회 교구 사역 일정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역주제	교구대심방/리더십세우기/ 교구워크샵		이웃사랑초청잔치 전환	교구별 이웃리치 전환	교구별 이웃리치 전환	교구별 이웃리치 전환	교구 구역애배 방학	교구대심방	새 생명축제 전환	교구훈련 및 송년계획		
사역보고	월별보고서, 주간보고서	주간보고서	월별보고서, 주간보고서	주간보고서	월별보고서, 주간보고서	주간보고서	월별보고서, 주간보고서	주간보고서	월별보고서, 주간보고서	월별보고서, 주간보고서	월별보고서, 주간보고서	주간보고서
중점시역	장조시역	연합시역	거점시역	연합시역	미래시역	연합시역	거점시역	청조사역	거점시역	연합시역	미래시역	연합시역
교구시역	리더세우기 임원선출 대심방 기도회 릴레이기도회	교구리더미팅 심감기도 이웃사랑관련 준비계획 교구리더세미나	이웃사랑창도회 태신지역단체출 지역전도 관계전도선물	이웃사랑창도회 파이브전도전행 (1차-5차선물) 부활절개관본배	교구이우회 교구채우는데회 이웃리치기도회 전도학교연계관련 새가족심방	교구별 이웃리치전행 (안면, 교회선정, 기도회전행)	릴레이기도 교구기도회 바이블이카데미 신청및개강	교구리더미팅 새생명축제(전개회) 파이브전도전행 (1차-5차선물) 수능생명단기도	구역개강 리더양성수련회 태신지역단체출 새생명축제(전개회) 파이브전도전행 교구전도	새생명축제준비 리더이우회수능 수능생명단기도 파이브선물전달 교구전도	교구외인들이 강사축제준비 각기 권말례회 중보기도시정 수능생명(화)심방 수능생명물 새가족심방	신년계획 성탄축하기계획 관외, 주일, 돌봄 (면전달하기) 송구영신특채 구역대심방 준비도회(사전회)
교회일정	영구영신특채 산남(합문)기도회 구역사우회 새해관련 대상(선별) 기도수첩 지역(주전도) 교역자의 특별릴레이기도회	목회연구기간 제자훈련대상확인 제자훈련개강 제자교사교육 구역개강 선교학교개강 전도학교개강 지역(주전도)회원 교역자의	구역(예배)개강 제자훈련 이웃사랑 초경전치 고난주간특채 이웃리치 장소준비 교역자의	이웃사랑초청잔치 고난주간특채 부활주일 성탄, 새해식 이버저학교 아미나학교 가정의달 사전 교역자의	이웃리치대상 교구선물및식사 가정의달행사 수능생명단확인 기도수첩 새가족특별한초대 성경강림주일 교역자의	교구이웃리치 구역방학 훈련방학 교구기도회 릴레이기도준비 중보(노년)선정회 교회(합문)주일 교역자의	목회연구기간 하반기지역(자) 구역개강 훈련개강 새생명축제준비 기도수첩 교역자의	새생명축제 새생명축제 새생명축제(광고) 교역자의	새생명축제 탄트준비(및배너 등목선물준비) 교역자의	추수감사절 수능기도회 교구(자)축제 새가족특별한초대 릴레이기도(대) 기도수첩 특별철야 교역자의	성탄지역송 성탄체례식 송구영신(예배) 새리더임명 각기 권말(월)회 송구영신특채 구역대심방	
전도훈련	제자, 사역, 사명자 훈련모집 및 준비		제자, 사역, 사명자 훈련		제자, 사역, 사명자 훈련		제자, 사역, 사명자 훈련		제자, 사역, 사명자 훈련			
전도	방문전도, 관계전도, 차 전도, 이사회, 연합노방전도, 이웃리치											
주관부서	인수집사회, 교구장, 구역장		교구장, 구역장, 인수집사회, 여전 도회, 권사회		인수집사회, 교구장, 구역장		인수집사회, 교구장, 구역장		교구장, 구역장, 여전도회		교구장, 구역장	
여전도회	심방 및 경조사, 월례회, 릴레이기도, 주차정성김, 담자구역장간식준비											
권사회	심방 및 월례회, 경조사, 기도회, 릴레이기도, 주차봉사, 성찬봉사											
인수집사회	정기모임, 경조사, 릴레이기도, 주차봉사, 성찬봉사											

## 참고 문헌

## 번역서적

- Craddock, Fred B.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대서, 2007.
- Craddock, Fred B. *권위 없는 자처럼*.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14.
- Stott, John R. W. *현대교회와 설교*. 서울: 생명의 샘, 2010.
- Stott, John W. *Between Two Worlds,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정성구 역 *현대교회와 설교*. 서울: 품만출판사, 1985.

## 한국어서적

- 김덕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납적 강해설교 = Inductive expository preaching*.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0.
-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 김운용. *현대설교코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 김종래. *CEO 칭기스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경기: 로템나무아래에서, 2013.
- 임영효.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 서울: 영문, 2008.
- 조병호. *그 순간*.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선지자와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 논문, 잡지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 실천* 49 (2016), 159-184.

정인교. “말씀과 신학 / 새천년설교살리기: 전통적 설교에 대한 반성 - 새로운 설교 방식을 위한 전제.” *활천* 571 (2001), 52-57.

담임목사 설교를 위한 1일 성경통독세미나 자료집(2010)

### Website.

다음 어학 사전 <http://dic.daum.net/>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https://namu.wiki/>

<https://jwind.sja.or.kr>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8201/20160606/>

<http://www.andong-ch.org/seniorpastor>

##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JungMo Yang

Place and Date of Birth: Pohang, South Korea, Apr.05, 1975

Parent's Names: Kwangsoo Yang and Soonyun Kong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Ocheon High School</b> : 293, Haebyeong-ro, Ocheon-eup,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Korea.	Diploma	Feb. 7, 1994
Collegiate: <b>Yeungnam University</b> 280, Daehak-ro, Gyeongsan-si, Gyeongsangbuk- do, Korea.	BM	Aug. 31, 2000
Graduate <b>Anyang University</b> : 22, Samdeok-ro 37beon-gil, Manan-gu, Anyang- si, Gyeonggi-do, Korea.	M.div	Feb. 22, 2007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ungMo Yang

Name typed

May. 2018

Date